(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76－877　1982년 7월 16일(금) & 1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ly 16 & 1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이철수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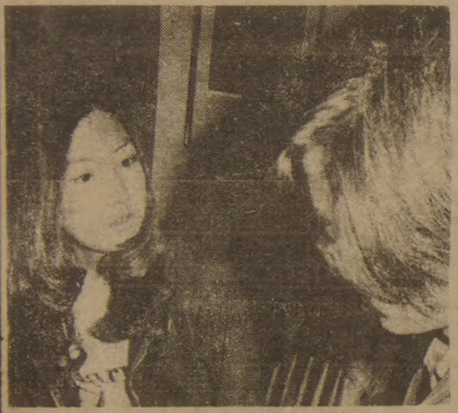
"자유의 그날까지"

눈물겨운 일본여성의 온정9년
이철수 구하기 위해 변호사돼

◆동포들의 성원으로 외롭지 않나는 이철수씨는 벌써 10년째 옥살이 하고 있다.

◇10일로 이철수씨(29)가 차이나타운 갱살인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종신징역을 받은지 9년째이다. 옥중에서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이씨를 위해 지난8년동안 한인 컴유니티를 비롯 각계에서 성원이 답지했으나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사건이 해결을 못보고 시간을 끌자, 내부분이 도중하차해 버렸다. 그러나 이철수씨를 돕기위해 9년을 하루같이 무죄투쟁 캠페인을 펴고있는 일본인2세 여성이 있다. 랑꼬·야마다양— 그녀는 이철수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법학을 일부러 전공, 현재는 변호사가 되었다.

(LA지사)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15마일 태평양파도가 넘실거리는 타말언덕에 자리잡은 샌퀸교도소 독방에 갇혀있는 이철수씨는 오랜세월을 통해서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9년을 하루같이 이철수 무죄석방 캠페인을 펴고있는 랑꼬·야마다(29) 변호사

철수고향 찾아가 한강가에서 한없는 눈물…
「억울한 감옥살이」 구할 집념의 야마다양

자신의 무죄를 처음 보도한 이경원기자, 후원회를 결성해 부모의 역할을 해온 유재건씨 부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각지역의 인종을 초월한 이철수 후원자들.

그중에도 이철수씨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여성이 한명 있다. 일본계로 미모의 여성 랑꼬·야마다양이다.

랑꼬·야마다 변호사는 오는 8월2일 이철수재판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헤랄드·이그재미너〉지와 〈크로니클〉지등 2대 신문에 「이철수 무죄」 광고 캠페인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야마다변호사는 9일 "많은 사람들이 이철수씨를 잊어가고 있으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철수씨와 같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진리를 추구하는운동에서 가장 무서운것은 오랜세월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지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철수씨의 무죄가 결정되어 자유의 날까지 결코 굴복치 않을 것"이라고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그녀는 이철수씨가 9년전인 지난 1973년6월7일 경찰에 살인용의자로 체포되자, 수중에 들어있는 전재산 2천1백달러를 들고 변호사들을 찾아가 호소했다. 그러나 3천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철수씨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일생을 통해 그 당시의 순간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정한 변호사들에게 충격을 받아 랑꼬·야마다양은 법률공부를 전공하기로 결심, 마침내 변호사가 됐으며, 이철수후원회를 도와 「무죄 캠페인」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참여, 후원회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며 9년의 장구한 시일동안 변함없이 후원한 랑꼬·야마다양은 지난해 겨울 이철수씨의 고향을 직접 방문했으며, "철수가 어릴때 뛰놀았던 뚝섬에서 한강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면서 "하루빨리 이철수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무죄운동」에 새로운 각오를 굳혔다"고 말했다.

계획안 고안 예정
주택장관 장담설 부인

(오타와)폴·코스그로브 주택장관은 13일 의회에서 "나는 모기지 이자를 감소 계획안을 고안할 예정(Commitment)이라고 했지 틀림없이 고안하겠다고 장담(Guarantee)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플레에 대응하는 한편, 이자율 감소를 목표로 한 이 계획안에 대해 브로드벤트 신민당 당수등은 정부의 즉각적 계획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코스그로브장관은 "세상에는 틀림없는 일(Guaranteed)이 3개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신민당 당수의 매사 부정적 태도가 그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슐츠 신임미국무
미군 계속 주둔확인

(워싱톤)신임 죠지·슐츠 미국무장관은 13일 한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은 계속 협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무장관인준을 위한 상원청문회에 나온 슐츠장관은 이날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미국과 중공간의 견해차이가 있음을 시인하고, 그러나 미국도 북한의 군사위협이 있는 한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인플레 대항
저축·대부 인기끌듯

(오타와)연방정부는 금년 하반기중 인플레이션 대항 새 저축 프로그램을 마련, 저축가들을 보호하는 소기업인, 농부, 어부, 신축 주택구매자들의 이자부담을 덜게할 예정이다.

지난 6월28일의 메케른재무장관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이미 정부은퇴저축(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만큼 큰 관심을 일으킨 이 계획은, 8월말까지 주정부및 국민여론을 들은 후 삐에르·로피 몬트리얼 증권거래소장이 지휘하는 특별위원회에 넘겨져 재검토된다.

기업가, 회계사,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합을 가졌다.

정부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결정된다. 구좌의 예금(투자) 상한선은 없으나, 예금자는 캐나다거주자에 한한다.

정부는 이 계획이 실시되면 시중에서 연간 150억～2백억 달러의 자금을 흡수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계정으로 흡수된 돈의 융자전용은 신축주택구입자및 감가상각되는 내구재를 구입(투자)하는 농부, 어부, 중소기업인에 한한다.

차용인(돈을 빌린 사람)은 인플레션율에 의한 연간이자및 소액의 실질이자를 부담한다. 단지 실질이자액만 과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계획에 의한 이자부담은 현재 시중금리보다 3～6%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차용인이 부담하는 실질이자는 물론 예금주가 받는 실질이자보다는 2～3%가 높다. 금융기관은 이 차액으로 이 계정을 운영한다.

이자소득 일부면세로
예금유치·주택구입
기업인에 싸게융자

은행, 신탁회사(Trust Companies), 신용조합등 금융기관은 최소1년 이상의 정기예금 특별계정(아직 이름이 없다)를 설정한다. 마치 보증투자증서(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s)를 사는 것과 같다.

정기예금에 붙는 이자계산 방법이 지금까지의 각종 예금과 다르다.

즉, 인플레이션율로 연간이자를 계산, 돈 가치를 유지해 주고, 2～4%의 실질이자를 주어 예금에서 오는 이득을 살려준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율에 의한 연간이자는 과세대상에서 면제하고, 실질이자소득만 과세한다는것. 실질이자 소득은 기존 1천달러 투자공제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구좌의 예금(투자)자는 인플레이션 만큼의 이자를 받아 투자액의 구매력(돈가치)을 유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크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고려중인 또하나의 대체안은 주주투자계획(RSIP:Registered Shareholder Investment Plan)이다. 이것은 RSIP계정에 예금된 돈으로 증권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산다는 것이다. 연말이면 예금액은 인플레이션율만큼 불어난다. 주식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오른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주식값이 내려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절반은 다른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RSIP는 증권회사 또는 특정 금융기관이 운영한다.

이 계획의 잇점은 투자소득세(Capital Gains Tax)의 세율을 현존 50%에서 15%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희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서울올림픽에 야구포함 될듯
국제연맹, LA올림픽 4팀 시범경기

(몬트리얼=유승민기자)84년 LA올림픽에서 시범경기를 갖는 야구가, 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아마추어 국제야구연맹(AINBA) 로버트·E·스미스회장이 13일 발표했다.

53회 북미프로야구올스타게임 참관차 몬트리얼에 들른 스미스회장은 "LA올림픽에서는 지역선발전을 거친 3팀과 주최국 미국이 리그전으로 시범경기를 갖는다"고 말했다.

지역선발 3팀은 북·남미지역, 유럽, 아시아대표 각1개팀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야마모도 국제연맹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선발전을 83년에 갖게되며 장소와 일시등은 오는 9월 서울의 세계 야구대회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AINBA의 스미스회장은 12일 보위·쿤 북미프로야구 커미셔너, 서종철 한국프로야구 커미셔너, 라게조·시모다 일본프로야구 커미셔너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야구는 프로·아마구분없이 전 세계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88서울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제야구연맹에 소속된 나라는 이미 IOC가 요구하는 40개국을 넘은 46개국이며, 오는 84년까지는 50개국이 넘을것으로 국제야구연맹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53회 올스타게임 참관차 몬트리얼에 들른 서종철 한국프로야구 커미셔너는, 보위·쿤 프로야구 커미셔너등과 만나 한·미간 프로야구 교류등 문제를 협의하고, 오는 15일 뉴욕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갖는다.

서커미셔너는 19일 뉴욕양키즈 구단주 스타인 브레너와 만나며, 24일 LA에서 다저스 오말리 구단주와 만나 다저스의 방한문제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종철커미셔너의 캐나다및 미국방문에는 한국프로야구 전기우승팀인 OB베어스 구단주 박용민씨와 김창웅프로야구 홍보부장이 수행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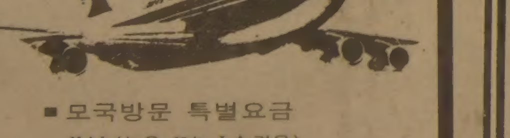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대리점
란콤화장품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여왕의 침대에 올라앉아 영국 정가를 뒤흔든 사나이 31세의 마이클·페이전. 그는 한달전에도 버킹검궁에 잠입, 포도주 한병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됐었다. 여왕이 곤경직후 전화로 구원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출동이 10분씩 지연된점, 범인의 발자국때문에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불구, 궁경비대가 이를 묵살한 점, 여왕침실 문지기가 개 산책 시키기에 바빠 범인의 침실 잠입을 못 막은 점을 들어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고, 당직 경찰이 해고되었다. 여왕은 법정에서 증언치않는다는 관례때문에 가장 유력한 목격자의 증언이 없어, 14일 있은 페이전의 재판은 곤경에 빠졌고, 아직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식입건은 없었다.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헌
신용목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년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MR. 안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박재훈 박사 사임설

캘거리 한인교회 목사로 부임

◆박재훈 박사

한인합창단(단장 한기철)의 산모로 창단이후 계속 지휘를 맡아 왔으며, 연합교회(목사 이상철) 성가대 지휘자인 박재훈(58)씨가, 곧 캘거리한인교회의 목사로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이상철목사에 사임의 뜻을 전하고 LA 여행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박박사는 LA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목사는 "박박사의 사임 소문은 가능성은 있는 얘기이나, 모든 것은 박박사가 LA에서 돌아오는 18일(일) 확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합창단의 한기철단장은 15일 "지휘자의 사임은 소문으로만 들릴뿐, 정식으로 제출된 적은 없다. 현재로서는 새 지휘자 물색이나, 합창단의 향후에 관해 논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박박사가 "LA에서 활약중인 음악가 배효축씨를 후임자로 권고해보겠다는 뜻을 비쳤으며, 그동안 신학수업을 해 온 박박사가 부임할 것으로 알려진 캘거리교회의 목사는 최근 타지역의 선교사로 부임케돼 후임자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박재훈씨는 종교음악 작곡가겸 지휘자로 79년 한인합창단 창단이후 합창단의 질적수준을 끌어올려, 81년 메씨·홀에서 메시야대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등, 토론토 교민사회에 종교·음악방면의 업적이 커, 81년 제1회 한국일보사 제정 「한인 민족상(예술부문)」을 수상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환율인상·중공업 투자지연

국제개발은행 한국경제진단

(서울15일=연합)침체된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대책이 시급하다고 15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진단했다.

「한국과 한국경제의 국제경제 풍토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IBRD는 한국의 경제가 80년대의 불황역경을 벗어나려면 점진적·실용적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경제대책이 시급 자원난으로 핵발전, 자동차, 석유화학, 운수및 교육등에 투자는 지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투자규모는 10%, 즉 미화 $120억정도 삭감돼야 하며, 그 이유로 충분한 국민저축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임을 들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안정은 우선 경제계획에 의거 기대되야 하며,

(2) 민간투자 붐은 83년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업이익 보호 정책이어야 하며,

(3) 수출을 위해 환율을 인상시키고,

(4) 통화팽창정책과 임금통제책이 필요하며,

(5) 투자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중점을 두고, 중화학공업은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지사는 25개

한국무역회사 통계

(서울15일=연합)총 615개의 한국 무역회사들은 82년 3월말 현재 세계 67개국에 1,448개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한국 기업지사는 총25개임이 15일 발표된 한국 무역인협회의 통계에서 밝혀졌다.

해외지사를 가진 무역회사의 수는 615개로 지역별로 미국이 가장 많은 550개, 일본이 174개이며, 그밖의 아시아지역은 201개, 유럽지역은 188개, 중동에 167개이다.

◆올림픽스타디엄의 입장식 광경— 왼쪽에 보이는 것이 올스타게임 마크이며 청렬한 브라스밴드가 연주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46개국 국기가 사열됐다.(국제아마야구연맹 소속) 태극기는 왼쪽에서 12 번째. (올림픽 스타디엄 13일—유승민기자 촬영)

84년, 교황 방한할듯

한국교회 2백주년 대회때

(LA지사)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추기경은 남미순방길에 지난 9일 LA에 들러, 글렌데일 성삼한인성당(주임 현시몬 신부, 3722 Boyce Ave, LA, CA 90039)에서 미사를 집전, 강론(설교)에서 "현대인간의 소외"를 역설했다.

김추기경은 "세계는 혼자 살 수 없는 우주만물의 원리와 신의 세계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금의 세계는 이념을 초월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세계로 재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이 방법만이 현대인간 소외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것"이라 강조하고, "이것이 비록 물리적인 동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적인 지고한 사랑과 믿음으로써 만남이 있고, 순수한 태초의 영신적인 마음이 개방된다면 현대인간의 소외는 치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사후 정완영 사목위원장댁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황에게 오는 84년 한국카톨릭 2백돌 기념대회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장을 띄웠다"고 밝히고, 교황청의 호의적 반응을 받았음을 덧붙였다.

김추기경은 교황청의 말을 인용, 교황은 아시아 여러나라 순방길에 한국만을 찾기를 원했다고 전하고, 교황의 폴랜드 2차방문이 이루어지면, 이념과 국경에 관계없이 한국방문 가능성도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12일 남미로 향했다.

하와이 교포사기

한국경찰에 체포

(서울15일=연합)한국경찰은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교포 박성욱(48)씨를 사기죄로 체포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작년말 미국에 이민하려던 조중식씨에게 접촉, 보가스 식품회사를 사주겠다고 5천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미국이민후 박씨가 사기친것을 알고 한국경찰에 통보, 지난 7월 방한중인 박씨를 체포했다.

올림픽시설 돌아봐

서울시부시장등 4명 방문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88년 서울올림픽을 치룰 서울특별시의 이상윤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명의 사절단이 올림픽준비차 캐나다를 다녀갔다.

뱅쿠버를 거쳐, 10일 몬트리얼에 온 이부시장 일행은 몬트리얼 올림픽스타디엄등을 둘러보고 12일밤 지하철기재 구입차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때마침 올스타야구게임으로 축제무드에 젖은 몬트리얼을 둘러본 이부시장은 "몬트리얼은 76년 올림픽 개최로 아직도 10억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흑자올림픽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한국은 지역이 좁아 부산, 대구등의 시설도 이용가능, 현시설로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어 큰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시장은 12일밤 시내 한국식당 「회의 집」에서 방용성노인회장, 정회수박사등 교민들과 한국의 정세등에 관해 환담했다.

한국, 캐나다 제압

남자배구 친선게임

(서울15일=연합)한국국가대표 남자배구팀은 15일 캐나다를 3대2로 물리쳤다.

인도·미국·캐나다·한국의 4개국 다표팀이 친선게임을 갖는 국제남자배구토너먼트는 지난 13일 개막됐었다.

이날 경기의 스코어는 15대12, 15대17, 13대15, 15대3 및 15대7로 한국은 첫세트를 제압한뒤, 2·3세트에서 캐나다에 눌렸다가 4·5세트에서 만회했다. 캐나다는 16일 미국, 17일 인도와 대전한다.

〈스포츠 단상〉

49년만에 미국땅 벗어난 야구제전

"캐나다국민 대부분이 엑스포스편"

몬트리얼 올스타게임 축제무드

(몬트리얼)트루도수상은 13일 낮 보위·쿤 커미셔너 주최 만찬회에서 "2,400만 캐나다국민은 대부분이 엑스포스팬이고, 나머지가 겨우 블루제이스의 회복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고 말한것 처럼 몬트리얼의 야구열풍은 대단하다.

필자가 올스타게임 취재차 몬트리얼에 간다고 했을때, 토론토 교민들은 "올스타 게임이 무엇인데, 그것 TV나 보고 취재해도 되잖어"하는 반응이었다. 이에반해 몬트리얼 도착후, 교민들의 반응은 "표좀 사는 방법이 없느냐. 암표가 벌써 나돈다는데···"였다.

기자취재진과, 야구관계자들이 묵고 있는 몬트리얼시내 보나벤처호텔에는 10대 소년·소녀로 부터 60대의 노인들까지 몰려와 인기선수들의 싸인을 받고 있다.

필자가 장훈선수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로비쪽으로 걸어나오니, 12살된 소년이 올스타게임 페난트를 내밀면서 장훈선수의 싸인을 받고, 필자에게도 또 요구, 선수가 아닌 기자라고 하니 그래도 좋다고 한다.

12일 아침 몬트리얼 도발공항에 내려 빽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망설이는데 엑스포스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이 올스타게임 본부가 있는 보나벤체호텔로 가는 취재원들을 위한 특별빽스에 타라고 한다.

이미 67세계박람회(Expo), 올림픽등을 치른 몬트리얼시는 세면도구에서 볼펜에 이르기까지 올스타게임 마크를 새겼고, 식사, 교통편등 모든 써비스가 철두철미하다.

1933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올스타게임은 49년,53회만에 처음으로 미국땅을 벗어났다. 몬트리얼 야구역사는 길다. 39년에서 57년까지 LA다저스의 전신 브루크린 다저스가 마이너리그팀을 몬트리얼에 두고 있었고, 트루도수상의 아버지 고 찰스·에밀·트루도씨도 인터내셔날리그의 몬트리얼·로얄스 부사장을 지냈다. 트루도의 아버지도 트루도가 정치가보다. 야구선수가 되기를 더 원했다고 한다.

69년 엑스포스의 창설로 미국땅을 벗어난 메이저리그는 77년에 토론토·블루제이스 창설로 미국야구에서 북미야구로 변했다. 뱅쿠버도 현재 맹렬히 메이저리그팀 유치운동을 펴고 있다.

특히 이번 올스타게임은 서종철 한국의 커미셔너등에 외국인사들을 초청, 프로야구 세계화에 전기가 됐다.

해마다 왕년의 올스타를 이 던지던 시구도 이번에는 12명의 세계 올스타로 바뀌었다. 일본 프로야구출신의 한국대표 장훈, 일본대표 나가시마의 2명과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출신 10명이 국적별로 나뉘어 참석했다. 행크·아론(미국), 미니·미노사(큐바), 주안·마리첼(도미니카), 보비·아빌라(멕시코), 매니·상길런(파나마), 오란도·세파다(푸에토리코), 보비·톰슨(스코트랜드)와 캐나다출신인 2명으로 클라우드·레이몬도, 죠지·세커이 합동시구 인사로 뽑혔다. 한가지 유감이라면 한국대표로 참석한 장훈선수가 일본식 하리모도·이사오란 이름으로 불리웠다는 점이다.

올스타게임은 작년에 클리브랜드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시카고(화이트삭스주최-시카고에는 내셔날리그의 컵스와 아메리칸리그의 화이트삭스 두팀이 있다), 84년도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개최된다.

한편 14일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85년 올스타게임은 토론토·블루제이스 주최설에 대해 블루제이스 부사장 패트·길릭는 "모르는 얘기다. 아직은 익스비션스타디엄이 올스타게임을 주최할만큼 수용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85년이든지 그후든지 토론토시민들이 이 화려한 북미야구의 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유승민 부장〉

서울—LA측 연결

올림픽 자료수집 위해

(LA지사)김용식 서울올림픽(88년)조직위원장은 13일 피터·우베로스 LA올림픽조직위원장과 만나 LA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의 연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서울올림픽조직위측은 84년7월28일 열리는 LA올림픽에 서울올림픽관계자 연3백여명을 파견하여 88년 올림픽에 대비한 광범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LA올림픽조직위원회(LAOOC)는 한국선수단및 한국인 관광객수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을 안내하기 위한 한국인 청소년들을 가능한한 많이 임시고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캐나다를 압시다… 자랑거리 115개③

바하의 권위자 글렌·굴드·무료혈액

최고순도 마그네시움·사스카툰산딸기

45)시모어산과 딥·코브계곡

5월에 브리티쉬·콜럼비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시모어산의 눈속에서 눈장난을 하다가 20분 뒤에는 딥·코브 계곡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절묘한 자연의 조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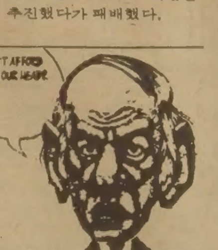
46)몬트리얼의 신경과 병원

1934년 와일더·펜필드박사가 건립한 몬트리얼의 신경과 병원은 두뇌연구와 간질병 연구로 권위가 있다.

47)르네·레벡 퀘벡주 수상

수십년뒤 20세기말의 캐나다 역사를 쓴다면 르네·레벡은 분명히 역사의 1장을 기록할 것이다.

레벡은 캐나다의 사회적·정치적 양심을 깨우친 인물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는 잉글리쉬·캐나다 속에서 프렌치·캐네디안의 권리를 위해 퀘벡의 독립을 추진했다가 패배했다.



47.
— René Lévesque —

48)글렌·굴드(피아노,올갠연주자)

바하음악의 탁월한 연주가. 그는 특히 완벽한 음악을 위해 컴퓨터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49)오카나간의 말린 과일 제품공장

오카나간계곡에 있는 2개의 공장이 중동의 방법을 응용, 말린 과일제품의 다량생산에 성공, 맛있고 영양많고 쫄깃쫄깃한 사과, 오렌지, 자두, 파인애플, 바나나등을 만들어 낸다.

50)디보니언·가든

캘거리 다운타운의 샤핑·몰 전물 꼭대기층에 만들어진 호화판 실내정원은 1만6천그루의 열대수를 가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심의 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카봇·트레일(The Cabot Trail)

케입·브레톤(Cape Breton)을 따라 난 해변로를 지나면 마치 지구의 끝에 온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 추천자의 변.

52)캐나다 연방경찰(RCMP)

경찰이라고 하지만 군대처럼 힘이 막강한 연방경찰이 유니폼을 입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캐나다의 기념품으로 많이 이용된다. 실종된 관광객, 인디언 정보제공자의 기록을 잘 보관, 귀신같이 사건을 해결해내는 경찰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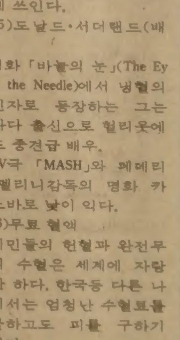
53)사스카툰 산딸기

추천자의 말에 의하면 사스카툰에서 나는 딸기를 먹으면 "푸른 창공과 부드러운 바람, 광활한 대평원을 만끽하는 것"같다고.

54)마그네시움

순도 99.98%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마그네시움이 온타리오주 헤일리의 크로마스코제련소에서 40년간 생산됐다.

51.
— The Cabot Trail —



52.
— The RCMP —

가볍고도 질긴 마그네시움은 자동차및 비행기 제조에 쓰인다.

55)도날드·서더랜드(배우)

영화 「바늘의 눈」(The Eye of the Needle)에서 냉혈의 살인자로 등장하는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헐리웃에서도 중견급 배우.

TV극 「MASH」와 페데리코·펠리니감독의 명화 카사노바로 낯이 익다.

56)무료 혈액

시민들의 헌혈과 완전무료의 수혈은 세계에 자랑할만 하다. 한국등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수혈료를 지불하고도 피를 구하기 어렵다.

〈계 속〉

SANDY'S GIFT & CHINA

세일기간 : 7월중순~8월중순(1달간)

↔ BRIDLE REGISTRY ↔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분들을 위해 고급 자기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시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8 숲 수픈
8 나이프
40 p c . 8 포크
8 샐라드 포크
8 티·스픈

Reg. ~~$480~~
Sale $280

— 각종 고급 자기류 구비
◎최고급 독일 Rosen-thal
◎최고급 영국 Wedgwood(40% off)
— 고급 아일랜드제 Waterford Crystal(30% off)
— 재고 Stock이 제한되었사오니, 선착순에 한합니다.
— 고급 스텐레스 취급

30% ~70%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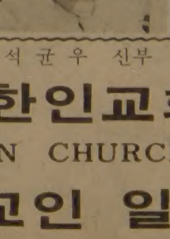
고급 아일랜드 크리스탈

Markham place
2900 Steels Ave. E.
(돈밀 × 스틸스)
☎ : 889—4216 Mrs. 허

성공회 예배안내

금번 새로 석신부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예배를 갖사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매주일 오후 1 시
장 소 : CHURCH OF THE NATIVITY
1301 Neilson Rd Scarboro 지역 (Hwy 401 × Neilson)
본당신부 : 석 균 우(마가)
신자회장 : 윤 종 석(요한)
사제회장 : 김 성 진(안토니)
♠ 연락처 : 최호영 277—4580
김성진 769—0506



석 균 우 신부

새마을 성공회토론토한인교회
ST. JAMES KOREAN ANGLICAN CHURCH
성공회 교인 일동

<한맘교육강좌>

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글교육 ④

조 성 준(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복합문화와 소수민족 언어교육

○조성준 씨

캐나다는 인구형성및 분포나 문화의 구성을본다면, 사실상 두개의 커다란 문화권 밑에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가 군데군데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역시 다수의 문화는 영국계 문화권이고, 퀘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문화권이 있는데, 역시 소수에 처해 있는 프랑스계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보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것 같다.

트루도정부는 1969년에 공용어법안(Official Language Act)을 선포하여 불어가 정식으로 국어로 사용될 것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불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주는 퀘백주와 뉴브런스위크(New brunswick)주밖에 없다. 미국에서 Melting Pot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목격해오고, 또 이곳 캐나다사회에서 여러 소수민족들이 자기들 문화보존을 위해 활발히 움직여오는 것을 본 트루도정부는 1971년10월에 캐나다 연방국회에서 정식으로 복합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을 선포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많은 소수민족들은 복합문화 정책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복합문화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나, 유럽 여러나라에서 이민들이 받는 푸대접을 보면 캐나다가 얼마나 이민들을 아껴주고, 복합문화정책이 이민들로 하여금 문화적인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받게하는 나라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복합문화 자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학자나 정치가도 적지는 않은 것 같으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일축해서도 안될 것이다.

워런·칼박(Warren Kalbach)같은 사회학자는 주장하길, "자기 고유의 문화를 오래 간직하는 것은 자기의 정서적인 면, 또는 감정적인 면을 달래어 주는데는 효과적인 요소가될 수 있지만 기계문명이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남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때는 소수민족의 회원들로 하여금 뒤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한다.

존 포터(John Porter)같은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즉 "소수민족의 자녀들이 그들이 원한다면 학교에서 자기 모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고유문화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진취적인 인간이 되기 힘들다"고 한다. 즉 문화란 과거에 뿌리를 박고 있는데, 오늘의 기계문명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가기 때문에 새것을 받아 들이고 진취적인 인간이 되는데는 뒤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헌것을 전부 버리고 새것만 받아들이는 인간형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간이 되겠는가?

반드시 그런 것같지 않다.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부간의 이혼율도 비례적으로 높고,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일반적으로 덜 행복한 것같다.(물론 예외는 얼마든지 있겠다)

실상 어느 누구도 헌것을 전부 버리고, 새것을 취할 길은 없다. 헌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이냐고 정의하기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만일 헌것을 문화라고 정의한다면 문화가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곳 캐나다로 이민올 때는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우리를 따라 함께 이민온 것이다. 우리의 문화속에서 좋은 것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할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사회에 공헌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정부가 복합문화정책을 선포한 것은 캐나다의 미래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을 믿는다.

그 문화에서 그 언어를 삭제한다면 결코 그 문화자체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하려면 과학에 필요한 언어가 있어야 하고, 음악이 보다 높이 승화하려면 음악의 언어를 통해 계속 작곡이 되어 새 작품이 탄생되어져야 하는 것과 같겠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의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나는 내 고장의 문화를 모르고 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내가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를 모른다고 캐나다 문화를 전혀 모른다고할 수는 없겠다. 그것은 문화의본질 속에는 언어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金聖鍾작 冷血 ⑫

惡夢의 연속에 그녀는 헛소리까지…

재벌의 부인 정도라면 또 모른다. 그런 여자에게는 30만원이라는 개념이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재벌도 아니었고, 따라서 30만원이라는 돈은 큰 액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

30만원은 그렇다치자. 내일까지 내놓아야 하는 5백만원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5백이라는 거액을 이틀밖에 모르는 사나이의 은행구좌에다 고스란히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녀는 자꾸만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그날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더욱 피로왔다. 남편에게 눈치 채이지 않으려고 애써보았지만 아무래도 이상했든지 그가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었을 때에는 가슴이 덜컹했다.

「아뇨.」

「안색이 영 안 좋은데 그래. 어제부터 말이야. 진찰받아봤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내일 한번가 봐.」

「속이 좋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한 번 가보라구. 혹시 모르지 않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쇠약해지는게 수상하잖아. 친구는 어때?」

「아직 그러구 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오후 4시까지 방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4시 정각이 되자 후닥닥 일어나 화장도 하지 않은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모습이 꼭 실성한 사람같아 어린 가정부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볼 정도였다.

15분쯤 지나 택시에서 내린 문자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 뛰어들어가 예면 5백만원짜리 수표를 한장 끊었다. 그것을 들고 이번에는 2백미터쯤 떨어져있는 Y은행지점으로 달려갔다. 4시 25분, 마감 5분전이었다. 안으로 허둥지둥 뛰어든 그녀를 사람들이 수상쩍다는 듯 쳐다보았다. 입금용지에 「모세」라고 이름을 적고 온라인 넘버 「55-42-930-5」를 기입한다음 수표와 함께 디밀었다. 벽시계가 막 4시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朴 男 그림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현실 같지 않은 일이 자신의 손으로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꿈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눈 깜박할 사이 거금 5백만원이 날아가버린 것이다.

집안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맡겨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런 거액을 은행에서 꼭 시인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에게 돈관리를 맡긴데에는 저축을 미덕으로 알고 아껴서 살림을 꾸려나가라는무언의 명령이 담겨져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목제이며, 그것이 지켜짐으로해서 가정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렸다. 고열과 함께 신음이 흘러나왔다. 몸살이라도 난 것처럼 그녀는 끙끙 앓았다. 밤에는 헛소리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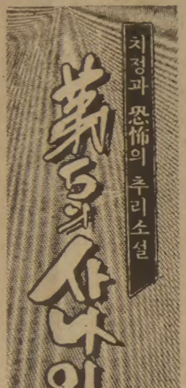
「안돼요…안돼요…그럴수는 없어요…안돼요…」

남편은 걱정이 되는지 그녀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그녀는 소스라쳐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다.

「헛소리까지 하는 걸보니까 아파도 단단히 아픈 모양이군.」

「제가 헛소리했어요?」

「응…」



<28>

◆몽땅 벗은 나체로 공원을 활보하는 문헨의 젊은이들.

나체산보로 골치

막무가내 벗기, 젊은층

날씨가 더워지자 서독 문헨시민들은 난처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일광욕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전나체로 일반공원을 활보하기 때문.

보수적인 시민들과 「벗을 권리」를 주장하는 나체일광욕광들과의 말씨름은 지난 몇년간 계속되어 왔다.

최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서 채택한 규정은 일부지역에서만 허용한다는 것.

그러나 젊은이들은 「난 내가 벗고 싶을때는 어디서나 벗고 일광욕을 즐기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들도 시의 소극적 대처에 불만.

제한구역에서 나체일광욕을 하는자에게는 서면주의와 함께 옷입기를 거부하는 경우 4백2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있다.

〈식 자 안 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 (416)533-2361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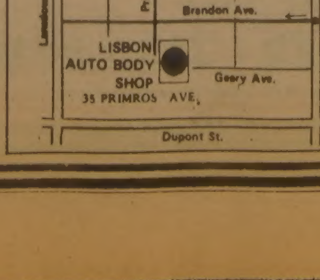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LISBON AUTO COLLISION INC.

❋여름철 교민특별 써비스❋

❋ 7월1일부터 새로운 장비와 시설로 교민 특별봉사합니다.
❋ 사고·보험관계 일체 처리
❋ 1년 개런티-수리후 문제에 대한 책임보증
❋ 수리중 차 무료로 대여함.
❋ 철저한 신용
❋ 24시간 토잉써비스 (531-9942)

35 PRIMROSE AVE. TORONTO
☎: 533-8507, 8(B) 439-6548(R) 대표 이영두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7·3조치」問題點많다"

3黨서 異議 國會立法과정서 論難예상

충격커 단계적實施 필요 (民正)
一貫性결여 補完 선행을 (民韓)
토대未洽 全面 보류해야 (국민)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은 預金·積金·株式및 利子에 대한 종합소득合算制를 골자로한 정부의 7·3조치가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함께 많은 문젯점을 내포하고있다고 지적, 철저한 보완 또는 실시보류등을 주장하고 있어 오는 정기국회의 立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民正黨은 이번 조치가 경제전반과 庶民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는점을 들어 단계적 실시를, 民韓黨은 多角的인 補完을, 국민당은 실시를 전면보류할것을 주장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民正黨] 民正黨소속국회 재무위원들은13일 상오 간담회를열고 姜慶植재무장관으로부터 「6·28」및「7·3」조치에 대한 배경등을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협의했다. 이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조치들이 너무성급히 추진될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정부가 내년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預·積金및 株式의 實名去來制를 단계적으로 실시할것을 건의했다. 의원들은 또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기위해 구체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기위한 立法과정에서 黨과 충분히 협의토록 요청했다. 의원들은 利子소득을 종합과세하는문제는 실시에 앞서 충분한 기초자료수집이 선행되어 부작용을 최소로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음 정부의잇따른경제시책에 대해 黨으로서도 별도의 종합대책을강구키로하고 한달에 2회씩 정부측과 정기적으로 이문제에 관해 협의키로했다.

[民韓黨] 「7·3」조치가 6·28 경기활성화 조치나 6·23稅制조치, 5·18주택경기浮揚조치 1·14景氣대책등 일련의 경제조치와 서로 相衝되는점이 많으며 이같이 정책이 변한다면 국민은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있는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분위기조성을 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民韓黨정책심의회는 이날 7·3조치의 문젯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金利를 국제금리의 절반으로 내린뒤에 종합課稅까지 할경우 資産도피적인 대량의 外貨 유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私債가 엄격한 특별조치법으로 더욱 陰性化를 촉진시키거나 부동산 귀금속등 비생산적인投機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다각적인 補完策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民韓黨은 이是正策에서 증권거래의 약95%가 假名에의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證市에 惡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證市육성방안의 제시를 촉구하고 法人稅등의 利率인하에있어 간접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간다면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이 방안은 또 7·3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어렵게만들 소지가 많다고 지적, 優良중소기업 1천개외의 중소기업에대해 지원대책수립을 요구하고 현租稅구조에선 세무공무원의 부정이더욱 커질우려가 있다고주장,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민당] 國民黨은 13일 상오 總裁團, 총무단, 정책위의장단연석회의를 열고 預·積金및 株式등의 實名去來制를 골자로하는 「7·3」조치의 기본전제가 歪曲되어있고 경제·사회적 危害性을 내포하고있을뿐 아니라 법률적 오류와 수용태세미비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이의실시를 전면 保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實名去來制및 종합소득세제는 최소한 5년이상의 준비기간을거친다음 실시해야하며 금융資産 거래를 假名에서 實名으로 유도할수 있는 實名優待장치를 강구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분리課稅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稅率의 差等幅을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實名制종합課稅制를 실시할것을 촉구했다. 국민당은 이어▲「6·28」후 조치의 효과를 관망한뒤에 후속보완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順理를 외면했고▲公金融의 만성적 자금부족과 金利차등 私債의 공급부족과 需要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7·3」조치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主宰하고 있다.

"北傀도발에 철저對備를"

全대통령閣議서 가뭄·장마被害 극소화도

"報告때 브리핑차트없애라"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北傀는 최근 機構와 사람을 크게 바꾸는등 對南정책을 강경자세로 전환한것같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軍警은물론 모든 정부처와 산하단체는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강화는 물론 상황전개시 즉각출동태세를 점검하는등 모든 安保태세에 완벽을기하도록하라』고 內閣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6·24改閣후 처음으로 靑瓦臺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지금은 夏節期를 맞아 北傀의 非正規戰 활동위험이 더욱 증대되고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도처에서 大小間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있고 국제정세가 날이갈수록 不確實性과 위기가 증대되는 긴박한 상황속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국제정세의 추이를 민감하게 분석, 판단하고 잠시도 放心하거나 安逸하지말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夏期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의 불량배와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모든 요인을 제거,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비가 오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부처가 농수산부를 적극지원, 旱害를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마철에 대비, 水害를 예방 또는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정부각 부처는 앞으로 번잡한 브리핑·차트를 통한 보고를 일체 하지말고 간소하게 보고토록하라』고 지시하고 『民願서류가 과거에 비해 대폭간소화됐으나 아직도 시정할점이 많은만큼 각부처는 불필요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국민의 불편과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中央廳안헌다

문공부는 중앙청을헐고 景福宮을 복원하거나 다른장소에 박물관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13일 발표했다.

문공부 관계자는 『이미 건축가 金壽根씨에게 의뢰해서 중앙청改修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끝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개수설계를위해 12일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학자들의 의견을 가능한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전인 85년까지 당초계획대로 이전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에 1백억원정도의 개수비용을 예산당국에 요청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湖南·濟州에 비

오늘·내일중 전국 한때비

중앙기상대 밝혀

중앙기상대는 13일하오 남부지역과 濟州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히고 14일과 15일에는 전국적으로 한때비가 내리겠다고내다봤다.

기상대는 이날하오 濟州남쪽북위30도 주위에 형성돼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것이나 위력이 없어 큰비는 몰고오지 않고있다고 설명하고 중국대륙의 저기압이 발생, 활성화되면 지역적으로 집중 호우가 있을것으로 예측했다.

하오3시현재 남부지방에 내린비는 木浦가16·8㎜, 光州가12·7㎜, 濟州12·8㎜, 西歸浦22·2㎜등이다.

北傀 우리漁船 拉北

어제 울릉도公海上 哨戒艦위협…35명 乘船

수산청은 13일 낮12시5분께 울릉도동북방 1백70마일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東草수협소속 제5마산호(1백14·48톤·선장 홍준원)가 북괴초계함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제5마산호는 35명의 선원이 탑승·우리어선 1백70여척과함께 대화태 어장근해 공해상에서 조업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괴초계함으로부터 무장한북괴군 4명이 마산호에 승선하여 어부들을총기로 위협, 북괴로 끌고갔다는것.

이날 마산호가 납북된 곳은 지난5일 하오5시30분께 북괴가 조업이던 우리어선 섬진5호에 총격을 가하면서 납북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친 인근해역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산청 당국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납북어부들을 즉각 송환하고 이러한 북괴의 비인도적 만행을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북괴는 휴전이후 지금까지 총4백54척의 우리어선과 3천5백68명의 선원을 납북, 이중 32척의 어선과 4백6명의 선원을 아직까지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戰況브리핑받는 아라파트PLO議長

야세르·아라파트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이 12일 베이루트 공항인근지역에서 벌어진 최근의 전투상황에대해 브리핑을 받고있다.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및 레바논 좌익연합세력과 이스라엘군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다. 【베이루트12日UPI電送=聯合】

民正黨 기구3元化

民正黨은 13일 현재 사무총장중심으로 되어있는 黨機構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役중심의 균형체제로개편, 운영하기위해 무국規程등 4개黨規를 개정 [illegible]

8月末 임시國會 民韓黨 소집요구

林鍾基民韓黨총무는 13일 『8월말께 임시국회를 열것을 民正黨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외교활동도 끝나고 酷暑期의 정치夏閑期가 지난뒤인 8월말, 가능한한 25일께부터 2주간에걸쳐 임시국회를 소집토록 요구할방침』이라고 말하고 『제1회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제출법안과함께 4당에서 제기한 議員立法을 다루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金日成 中共방문

75년이래 처음…8월下旬

【北京13日AP=聯合】북괴의 김일성은 중공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8월하순께 北京을 방문할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13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金의 방문이 최근 중공외무성 고문 符浩의 평양방문중 주선됐다고 말했다.

김의 이번 방문이 실현될 경우 지난75년이래 첫 중공방문이 되는 셈이다.

[illegible]

佛미테랑 연내訪韓

【파리13日=安炳燦특파원】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수개월내에 한국을공식방문할 계획이며 프랑스정부는 이와 때를맞추어 북한과의 외교관계개선문제도 검토할것으로 보인다고 르마땡紙가 12일보도했다.

집권 사회당계열인 르마땡紙는 소련과중공등 북한의 동맹국들도 지난30년간 계속돼온 한반도의 냉전분위기의 해소를 바라고있으며 이같은 냉전분위기가 한국과의 교역관계를 수립하는데 큰장애가되고있는것으로믿고있다고전했다.

프랑스정부는이에따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실현시키는 것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同紙는 보도했다.

社會漫評

황송하오나…

地平線

새싹회의 동요사진 순회전시회가 뉴욕에서 열리고있다. 「세계의 아빠와 아기」를 주제로 유엔아동기금이 각국사진작가들에게 공모한 컬러사진 69점과 한국사진 3점을 [illegibl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승시

215 Yonge St.
368 7961(B)
690-5217(R)

<서울식품 서부>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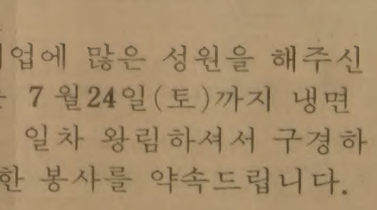
· 저희 서울식품 서부지점 개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보답코자 오는 7월24일(토)까지 냉면(2인용)을 Free로 드립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구경하십시요. 저렴한 가격에 철저한 봉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 · 김영록 배

1391 Weston Rd.

☎ : 243-9544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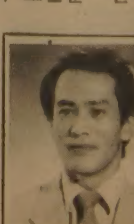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 Hamburger Shop($65,000): 미시사가의 바쁜 쇼핑센터 내. Rent는 $575(월)이며, 9년간 지속. 비데오게임 2대의 면허(월 순수입 $1,200). 현재 매상은 많지 않으나, 좋은 장소와 Rent & Lease의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상 늘리고자 하시는 분에게 적합. 일요일 휴업.

◉ Variety & Hardware($59,900): HWY 401과 Kingston Rd 동쪽의 동네 안에 위치. 위에 좋은 살림집있으며, 넓은 주차장 있음. 가게크기 1,500 s.f정도. 주 매상: $6,000이상 개런티. 이윤 30%이상. 건물매매도 가능.

◉ Gas Station: 월 수입 만불이상. 적은비용. 모든 장비와 살림집. 그리고 2.4에이커 대지포함. 해밀톤 서쪽에 위치. Price Reduced to $259,000 Only.

짧은 시간, 편한 사업

◉ Card Centre($42,000): 가게시간 9:30~5:00(월~금). 이윤 45%이상.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의 사무실 건물의 지하상가 내. 새로운 통로가 연결될 계획이며, 전망좋음. 작년 순수입 $25,000이상.

◉ Card Centre($59,900): 시간 10:00~6:00(월~토). 이윤 47%.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 바쁜 쇼핑몰. 2년됐으며, 앞으로의 전망좋음.

◉ Card Centre($150,000): 영업시간 주50시간 미만. 다운타운 Royal Bank Plaza 내. 년 수입 5만불이상.

◉ Variety & Gift($45,000): 시간 8:00~6:00(월~금). 주매상 $3,500~$4,000. 이윤 35%선. 곧 은퇴할 노부부가 운영. 전망좋음.

★기타 : 다른 사업체나 부동산들도 있읍니다.

포클랜드戰爭서 무엇을 얻었는가
「政治재판」받는 대처

◇포클랜드전쟁에서 부상을입고 한쪽다리를 절단한 한 英國병사가 귀국길에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도착, 부축을 받고있다. 【몬테비데오12日AP合同=聯合】

인사이드

포클랜드전쟁은 영국측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의 승리였다기 보다는 마거릿트·대처 영국수상의 한치 양보없는 무력강경책의 승리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쟁은 대서양상에서만 끝났지 영국내에서 까지 완전히 끝난게 아니다.

『2백55명의 영국군과 7백12명의 아르헨티나군의 목숨을 앗아간 포클랜드전쟁이 남긴 결과는 무엇인가. 대서양상의 보잘것없는 작은 섬하나를 위해 수10억달러의 전비를 써가며 10주동안 군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영국의 무력대응책이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면 그책임은 누가 져야되는가. 대처수상의 무력강경책은 아르헨티나 군부의 포클랜드점령의도를 잘못 읽은데서 비롯된게 아닌가.

대처수상은 윈스턴·처칠이 2차대전승리후에 사임한것처럼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

포클랜드에서 돌아오는 장병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시민들의 밝은 표정이 클로즈업되고있지만 영국政街는 승리를 자랑할 겨를도없이 포클랜드戰後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攻防戰을 치르고있는중이다.

이 공방전의 선제공격은 역시 대처수상으로부터 나왔다. 마치 대처수상이 포클랜드사태초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무력사용을 주장했던것 처럼.

戰後처리 攻防치열
豫想못한 前政權에책임 대처
필요없는武力…利得없다 캘러헌

대처수상은 前주미대사 프랭크경을 단장으로하는 포클랜드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원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동안 왜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무력강점을 예상치못했고 사태처리에 무력동원을 해야만했는가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대처는 이위원회구성 승인을 얻기에앞서 캘러헌前수상, 히드前 수상등 영국정계의 거물들과 가시돋친 설전을 벌여야만했다.

대처수상이 이 위원회구성을 발표하면서『포클랜드 전쟁원인은 현 보수당정권의 책임이아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65년부터의 외교정책을 자세히검토할 필요가있다』고 말하자 수상을 지낸바 있는 두 정객이 발끈하고 일어난것이다.

대처말대로 포클랜드 전쟁원인이 2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갈경우 이위원회는 맥밀런에서 캘러헌에 이르기까지 5명의 영국수상의 외교기록을 조사해야만 한다.

대처 비판자들은 대처의 발언이『포클랜드전쟁원인에대한 책임을 전임수상에 轉嫁시키고 조사범위를 확대시켜 20년간의 외교정책을 조사하려는 의도를 호도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캘러헌前수상은『나는영국기동함대가 포클랜드로 항진했을때 가진 확신을 죽는날까지 버릴수없다. 포클랜드전쟁은 필요없는 전쟁이었으며 대처수상은 이 전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처수상 비난에 열을 올리고있다.

같은 보수당인 히드前수상도『대처가 무슨 권리로 전내각의 외교정책을 조사하려하고 있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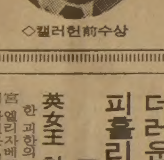
이처럼 조사확대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대처는조사를 현보수당정권의 외교정책에서 주로 진행시키되 필요한 자료는 前정권에서 도움받을수 있다는선으로 후퇴했다.

대처는 또『영국군은 전쟁터에서 묻힌다』라는 慣例를 깨고 포클랜드전사자 가족들이 원할경우 이들의 시체를 본국에 운송해줄것을 특별히약속하기도했다.

하지만 영국은 이제 포클랜드 무력사용의 功過를 차분히 평가하기위해『포클랜드에대한 시체해부』를 시작했다.

대처수상은 개전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와 올라갔던 인기가 다시 떨어질까 걱정하고있다. 대처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이라는 장기간으로 잡은것도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李炳圭기자】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처수상. 비판자들이 전쟁원인을 규명하기위한 조사에 착수할 기미를 보이자 또다시 선제공격을 가하고나섰다.



◇캘러헌前수상

◇히 드前수상

國際焦點

中東에 새戰爭회오리
武力으로 權利회복 이란
撤軍·協商 함께하자 이라크

22개월째 계속된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失地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란이 이번에는 이라크를 침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세계의 시각을 모으고있다.

이와관련, 유엔安保理는 12일 즉각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이란의 駐유엔대사 자이드·라자에·호라사니는 安保理회의에 불참, 유엔결의에 따르지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지난9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安保理의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알리·아크바르·벨라야티 이란외상도『이란은 이제 2년전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킨이후 어떤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유엔에 물어야할 권리가 있다. 이란의 주권과 기초가 위협을 당하고있을때 유엔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격렬한 어조로 유엔을 비난하고 나섰다.

벨라야티외상은『유엔이 정의의 편에서서 이란이잃은 권리를 되찾도록 도와줄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잃어버린권리란『이란이 이라크로부터 전쟁피해보상금 1천5백억달러를 받아낼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호라사니駐유엔이란대사의말속에도 함축되어있다.

이란은 그동안 휴전조건으로 ▲이라크의 무조건철수와 후세인정권의 퇴진▲전쟁도발에 대한 이라크의 사죄▲전쟁보상금지불등을 내세워왔다.

이에 반해 이라크측은▲이라크에 일부 이란영토의 양도▲샤트·알·아랍水路에 대한 이라크의 영유권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한때 이같은휴전조건에대해 이란은先철군後협상을, 이라크는 先협상後철군을 주장해왔으나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란측의 거부와는 달리 사도운·하마디 이라크외상은 安保理결의안을「평화로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한데서 잘 나타나있다. 하마디외상은『이란이 理性의 요구에 호의적으로 반응, 전쟁지연정책을 종식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安保理결의안은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선 밖으로 철군한뒤 유엔감시하에 항구적인 타결책을위한 협상을 개시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 있다.

이는 철군과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당초 先철군 後협상을 주장했던 이란측으로서는 더없이 유리한 제안이다. 그럼에도 이란은 이를 거부한채『강요받은 전쟁을 역사적 대전투를 통해 끝장을 낼것』이라고 이라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9월 이라크군의 침공이래 22개월간의 전투에서 이란은 2만5천여명의 전사자와 5만여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1백50만명을 전선에 동원했다. 이제까지의 총전비는 무려 1천5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의 경우도 사상자수는 이란측보다 다소 적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가결코 적은것만은 아니라는 소식이다.

이란은 정유시설의 파괴에 원유공급과잉까지 겹쳐 회교혁명전 하루 최고 5백만배럴까지 기록됐던 석유수출량이 한때 60만배럴까지 격감하자 전비마련을위해 잇따라 유가를 인하했으며 보유금을 방매하지않으면 안되었다. 이라크는 아직 유가인하를 단행하진 않았으나 역시 전비부족으로 이란처럼 다량의 금을 투매했다.

그러나 이같은 엄청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 전쟁은 이란과 이라크 위정자들에겐 이익을 준것도 사실이다. 이라크의 침공은 회교혁명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여 있던 이란에 국민적 단합의 계기를 부여했다. 애국이라는 명분아래 반체제인사까지도 對이라크 전선 대열에 서게 만들었다. 또한 이라크는 이란인들과 같은 시어파에 속하는 적대자를 제거할수 있는 구실을 집권층에 주었다.

특히 이란으로서는 완고한 호메이니옹의 영향도 있겠지만 작년9월이래의 점진적인 실지회복성과때문에 더욱 강경노선을 추구하게 된것이다.

이란의 이런 강경한 노선전환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는 나라는 사우디등 왕정국가들이다.

작년12월 이란에서 훈련받은것으로 보이는 회교시아파청년들의 일으킨 쿠데타가 분쇄된후 사우디등 페르시아만 4개국은 이란에의한 정부전복을 우려, 이라크를위해 무이자차관 2백억달러와 지원금 수10억달러를각출했다.

그리고 작년5월 사우디·바레인·카타르·쿠웨이트·오만·아랍에미리트등 6개국으로 결성된 페르시아만협력위원회(GCC)는 2월말께 집단방위조약을 체결, 「이란등의 혁명수출전략」에 대처키로 합의를보았다.

이란의 이라크 침공위협은 親이라크 아랍국들에게만 아니라 원유수송로를위협할 역내세력변화를 염려하는 미국등 서방국에도 간과할 일이 못된다. 특히미국은 2월초 와인버거국방장관의 사우디·오만·요르단 3국순방에 이어 3월초 이라크에 비군사장비 판매금지조치를 해제,관계개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이란국경에 25사단을 배치하고있는 소련은 70년대이래 가까운 동맹관계를 맺어온 이라크를 멀리하고 79년 회교혁명성공후 미국이 물러난 이란에 접근을 시도, 80년부터 자국제 카투사로키트 발사대, 박격포, 카라시니코프소총, 對탱크로키트발사대등을 특별히 공급하기까지했다.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개선역시 상대적으로 이란을 親蘇쪽으로 기울게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레바논사태에서 소련은 미국에간접적으로 패배했다고 보는 것이아랍국가들의일반적인 관측이다. 【林鍾乾기자】

◇개전초인 80년 9월26일 이란군의 포격을 받은 바스라지역의 이라크정유시설이검은 화염에 휩싸이고있다。이란군의 대규모병력이최근 바스라지역에 집결, 戰雲이 감돌고있다. 【UPI】

"이라크人 해방이 우리任務"
이란外相、武力침공 臨迫시사

【런던·뉴욕 12日AP=聯合】 이란은 이라크 접경지역에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테헤란당국이 바그다드의 바트黨政權으로부터 이라크인민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란軍의 이라크침공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관영 테헤란방송은 이미 이란軍과 이라크軍간에부분적인 포격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면서『우리는 이제 강요받은 전쟁을 역사적대전투를 통해 종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측통들은 이날 서방국수도의 주요 정보소식통들을 인용, 이란이 남부 페르시아전선에 대규모 병력을집결시켰으며 이제 이라크남부의 바스라港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아크바르·벨라야티 이란外相은 이날 테헤란방송을 통해 이라크人들이 이란에 대해 이라크의 바트黨정부를 타도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하고 바그다드의바트黨정권으로부터 이라크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란의『의무』라고 강조했다.

테헤란방송은 또 논평을통해 22개월전 이란영토를 침공한 이라크軍에『일대타격』을 가해온 이란은 이제『이 강요받은전쟁』을『역사적大전투』를 통해 종식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레바논協商 교착상태
시리아서 PLO간부 亡命거부

【베이루트12日AP UPI=聯合】 제6차 休전발효와 함께 12일 재개될 레바논 平和협상은▲시리아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게릴라들의 망명을 거부하고 ▲베이루트주둔 다국적 平和유지군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異見으로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평화협상의 중재역할을 하고있는 레바논 回敎정계원로 사엡·살렘씨가 말했다.

관측통들은 이에따라 레바논위기의 외교적 타결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면서『외교이외의해결책을 강구할지도 모른다』는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의 11일 발언을지적, 지지부진한 협상속도에 초조감을 감추지못하고있다.

佛·이스라엘 관계惡化
미테랑發言싸고 外交的 논쟁 激化
"이軍 베이루트包圍 나치大虐殺 비유"

【파리12日AFP로이터=聯合】 레바논 위기의 정치적 해결노력에참여해온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12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포위를 지난 44년 나치에 의한 프랑스마을 오라두르 쉬르 글란드 대학살에 비유했다는 이스라엘측 주장을 둘러싸고 격렬한 외교적 폭풍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마르크·본느푸 이스라엘 주재 프랑스 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는 동시에 메이르·로센 駐佛 이스라엘대사를 프랑스 외무성에 보내 미테랑 대통령의 지난 9일 부다페스트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공식항의를 전달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미테랑 대통령이 부다페스트의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공격을 지난 44년 프랑스서남부 오라두르 쉬르 글란드 마을에서 나치SS친위대에의해 6백42명의 마을주민이 대학살된사건에 비유했다고 비난했었다.

이에대해 장·루이·비앙코 엘리제宮대변인은 한성명에서『이스라엘당국은 그들의 항의가 정당한가를 확인하지않은채 부정확하게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반박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문제의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와파통신기자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을『오라두르대학살』에 비유하자『프랑스의 정책은 모든 군사적 침공에 반대하는것이며 군사침공의 결과저항이 발생하면 오라두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테랑 대통령은 또『나는 오라두르 대학살을 결코 용납할수 없었던 것처럼 베이루트에서도 오라두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中共、下放운동再開
청소년에 農村노력奉仕 강요

【홍콩12日=聯合】 中共黨은지난 상당기간동안 중단해왔던 학생및 청소년들에대한『下放運動』(도시거주학생및 청소년들을 농촌지역 노력봉사에 동원하는운동)을 이미재개했으며 黨간부들에대한 육체노동제도도 부활할 방침이라고 12일 홍콩의보文匯報가 北京발로 보도했다.

文匯報는 다시 실시될 육체노동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역사적 상황하에서 ▲黨風을 진작시키고▲관료주의를 배격하며▲업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공의 4대현대화계획을 주도해나가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中共黨의 中央黨校는 이제도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는가운데 ①實事求是의 大方針아래 黨간부들이 1년에 3~6개월간 노동자및 농부들과 同宿하면서 노동에 참여하고 ②노동은 공장노동외에도 씨뿌리기및 경작, 그리고 위생지도등으로하며 ③노동참가시간은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키로 한다고 밝힌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학생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下放運動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下放되는것을 거부하고있어 초반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메아리
王室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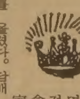
힘깨나 쓰게생긴 두 사나이가 무슨 일로인지 버스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무대가 좁다고 생각한 두사람은 다음 정거장서 함께 내렸다. 호기심에찬 메아리子도 공교롭게 그곳서 같이내리게되어 사태에 흥미를 느끼면서 지켜보았다.

그중 한쪽(甲)이 삿대질을 하면서 상대(乙)를 힐난하였다. 乙은 할말이없는듯 묵묵부답 틀림없이 수세에 몰릴만한 잘못을 먼저 저지른듯하였다. 그래서인지 이윽고 서서히 호주머니에서 담배를꺼내 한모금 빨며 연기만 내뿜었다. 乙은 한개비를 더꺼내더니 그것을 甲에게권하였다. 그리고 불까지 당겨 주었다. 甲도 그호의를받으며 한 모금씩 빨았다. 「고맙다」는 인사와함께 일그러졌던 甲의 얼굴이 어느사이 말끔하게 풀려버린채 둘은 묵묵히 제길로 돌아서는것이었다. 그들의 분쟁은 이래서 싱겁게(?)사그라졌다. 한대의 담배가 平和로운 해결의 도화선이 된것이다.

지난 9일 英國 엘리자베드女王의 침실을 범한 怪漢은 그 담배때문에 붙잡혔다. 이소식은 세기의 異聞처럼 지금 번지고있지만 기실 근래 1년사이 버킹검宮에는 다섯번이나 침입사건이 있었다 한다.

이번 붙잡힌자는 한달전에도 침입하여 반병짜리 포도주(싯가 4천5백원)를 훔쳐간 올해 30세의 마이클·페이건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사건으로는 閒罪를 받지않으나 한달전(6월7일)의 포도주절취죄로 10일간의 구류처분과 더불어 수사를 받고있다.

깊은 한 밤중에 괴한이 들이닥친순간 女王인들 얼마나 놀랐을까. 한데도 괴한을 불과 1·8m 거리에 두고 10분동안이나 차분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니 그 침착성과 인내심은 글자그대로 대단하다.



女王은 우선 담배를 달라는 괴한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담배를가져오게한 女王의 機智로 人命피해와 재물손상하나없이 王室침입범을 체포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담배 한갑치의 마력이 결코 작지않음을 한번더 느끼게도 한다.

하더라도 궁금거리는 한가지 더 있다. 女王의 거실이나 대궐의 경비를 어떻게 하였기에 그처럼 외부침입이 간단했는지 하는 점이다. 영국정계는 이문제로 한바탕 시끄러울것같다는 전갈이다. 의회가 떠들썩하게 되고 內務長官이 시달림을 받고있다는것이다. 런던경시청次席을 위원장으로하는 특별조사반이 구성됐다고도 한다. 그바람머리는 아무래도 드세질것만 같다.

더러운T셔스·청바지 차림
피흘리며 재떨이든채 잡혀
王室광신자… 모두 12번침입
英女王 침실犯人

한 괴한의 영국 버킹검宮 엘리자베드여왕침실 침입사건은 영국전체를 커다란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했으며 마침내 王室경호책임문제와 관련, 보수당내각을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고있다.

윌리엄·화이트로 영국內相은 12일 의회에서 이번의 괴한침입사건을 공식으로 확인하고『이사건이 왕실경호에 관한 가장심각한 실수였다』고 자인했다.

보수당의 클라크의원은『만약 이번사건이 계획된 테러리스트의 범행이었다면 그결과는 엄청난재앙이었을것』이라고분노했다.

경찰은 실업자인 마이클·페이건 (30)이라는 사람을 9일아침 버킹검궁에서 체포했으며 그는 1개월전 버킹검궁에 침입, 포도주한병을 훔친혐의로 10일 법정에 출두했다고 밝혔는데 페이건이 이번사건의 범인인지여부는 밝히지않았다.

한편 이사건을 처음보도했던 데일리·익스프레스紙는 사건당시 여왕이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깨어난순간, 범인은 더러운T셔츠와청바지 차림으로 깨진 유리재떨이를 손에든채 피를 흘리면서 침대한구석에 앉아있었다고보도했다.

또 선紙는 범인아버지의 말을 인용, 범인이「왕실광신자」이며 그가 과거에도 12번이나 한밤중에 버킹검궁에 몰래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범인이밤중에 아내곁을떠날때면 항상『나의 여자친구인 엘리자베드 여왕을 만나러 간다』고말했음을보도했다.

또 석간지인 뉴·스탠더드紙는 범인이 배수관을타고 기어올라 여왕침실 창문에 설치된 철망을 뚫고 침실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며 한 소식통은 버킹검궁에는 방이 6백개나 있는데 범인이 곧장 여왕침실로 숨어 들어간 점으로 미루어 과거에도 여러번 버킹검궁을 드나들었거나 궁내에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런던綜合=聯合】

◇"장하다 英海兵" 알몸 歡迎 영국의 한 젊은여성이 포클랜드에 파견됐다가 호화여객선 캔버라號로 11일 귀국한 2천5백명의 영국해병특공대원을 맞이하면서 열정에못이겨 웃옷을벗어제치고 환호하고있다. 【사우댐프턴12日UPI合同=聯合】

海外토픽

女性, 남성보다長壽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스트레스 해소및 사망의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조지타운의과대학의 에스텔·라미박사가 발표.

이 호르몬은 혈관에 血塊를 만들어내는 다른 호르몬을 생산하며 이로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되기까지 한다는것.

여성에게는 이 호르몬이 적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보다 쉽게 해소할뿐 아니라 수명도 더 길다. 이 학설은 65세이상된 노인의 남녀비율이 남성6백50명당 여성1천명꼴이라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고. 【로스앤젤레스=聯】

體內의종양 찾아내 치유 美, 돌파구찾아내
「神秘의 彈丸」量産가능

【프로비덴스(美로드아일랜드州)11日AP=聯合】 미국의학연구가들은 11일 체내의 종양을 찾아 치유하는「신비의탄환」이라는 항체의 생산을 종전보다 1천배이상 증대시킬수있는 기술상의 중대한 돌파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로드아일랜드州 프로비덴스의 브라운대학 로저·윌리엄즈종합병원의 연구팀들은 항암제실험의 일환으로 위해 시험관에 인체의 암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암발견및 치료에 필요한 보다 순수한 형태의 모노클로널항체를 재래식 방법보다 1천배이상 대량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른바『神秘의 彈丸』이라고 불리는 이 항체는 건강한 세포를 건드리지않고암세포에만 달라붙는데 지금까지 이 항체의 대량생산의 어려움때문에 전세계적인 개발노력이 지연되어 왔다.

印度에 살인적熱波
10일동안 22명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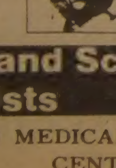
【파트나(印度)12日UPI=聯合】 현재 印度동부 비하르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열파는 지난3일동안 어린이 20명의 목숨을 앗아간것으로 11일 보고되었다.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브라질"봉디아"
친목회

브라질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금번 제4회 친목및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온가족 동반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　일 : 1982년 8월 7일(토) 11시
(음식은 각자지참)
장　소 : Sunny Brook Park
(축구장옆, 마지막 주차장)

♣오락과 상품이 준비되었음.
연락처 : 성용창 759－3583
박정환 533－7759
♣우천시는 다음주로 순연함.

봉디아친목회
회장 성 용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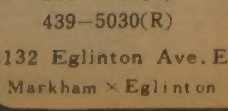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241－3952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의 食生活 이대로 좋은가◆

천대받는 보리밥

혼식장려虛事 해마다 消費 줄기만

가난했던 時節의 恩穀…고마움잊어

◇한때 성업중이던 꽁보리밥집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배고프던 시대의 향수를 일깨워주는 그리운 음식이기는 하지만 오래 먹기엔 맛없는 밥이기 때문일까.

혼·분식을 하자는 소리 높은 구호가 울리기 시작한지 올해로 꼭 20년이다. 주곡인 쌀의절대량이 부족했던 절박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정부주도의 혼분식캠페인은 쌀막걸리를 빚는다, 쌀을수출한다하고 흥청대던 70년대 후반기의 단 한해를 제외하고는 줄기차게 계속되어왔다. 국민학교와 중·고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시락에 보리가 섞여있나 없나 검사하기도 했고 구청과 시청의 관리들은 혼식의무를지키지 않은 음식점에 영업정지·허가취소까지내렸다. 세금혜택을 준다고 해서 꽁보리밥팔것을 종용해 한때꽁보리밥집이 유행하기도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나팔소리가 크고 단속의 서슬이 무섭다고 해도 정부가 마음먹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보리의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농수산부통계에의하면 지난74년까지만해도 한사람이 1년에 39.9㎏의보리를 먹었으나 80년에와서는 13.8㎏으로 거의 3분의1로 격감했다. 국민경제의 수준이높아지면서너나도나도 쌀밥만 즐겨 먹은 것이다.

보리란 우리민족에게는 지겹도록 먹기싫은곡식이었고 반면 더없이 고마운 은곡(恩穀)이기도 하였다.

이밥(쌀밥)에 고기국 먹기가 소원이었던농민들은 일년내내 보리밥만 먹는 것이 진절머리나기도했고, 양식이 떨어진 긴긴 춘궁기를연명해주는 햇보리는 또 그토록 고마운곡식이기도 했던것이다.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는 우리 속담은, 어서 보리익어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달라고 보리밥에 절을 한다는 처절했던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그 보리에 대한 진절머리도 고마움도잊어버린 것일까. 얼마 안되는 생산량을 소비하지못해 이제는 보리를 짐승에게 사료로 먹이는 시대가 되었다.

너무 푸대접을 받는 나머지 보리는 시장가격이라는것이 형성되지 않은 신세이다.

보리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생산량이 격감할 것을 우려, 정부는농민들에게 보리경작을 종용하고, 생산량의 상당량을 사들여 도시인들에게 팔때는 산값보다 싸게 파는 이른바 2중곡가제를 취하고있기 때문이다. 금년의 보리 수매가는 가마당2만9천7백원 (81년산기준)인데 방출가격은 2만3천3백30원이고 소비자가격은 2만5천4백원이다.

70년까지만해도 정부의 수매량은 전체생산량의 10%에 밑돌았으나 최근에는 50%안팎의 비율로 사들이고 있는데도 생산량은 매년 줄어든다. 70년대중반까지는 매년 1천만석이상의 보리가 생산되었으나 80·81년에는 6백만석안팎이었다. 그나마도 다 먹지못하고 사료로 상당량을 소비해야할만큼 보리는 괄시를 받고있다.

『보리를 너무 안먹어주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누가 보리를 심어주겠읍니까?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는 보리를 주곡의 무기로 삼아야할텐데 매년생산기반이 무너지고있으니 야단났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실장 朱龍宰씨는 곡물전쟁시대의 식량안보론을 펼쳤다. 금년처럼 온세계가 가물어식량난이 가중될 전망인데,우리 토질과 기후에 가장 알맞는 곡물생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있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이다.

2년전 淸州에서 시작된 꽁보리밥집붐이 서울에 퍼진일이 있었다. 관청가와 상가의 밥집골목마다 한두집씩 생겨난 꽁보리밥집들은 손님들이 줄을지어 차례를 기다릴정도로 반짝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년이 지나면서 한집 두집 간판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찾아보기어렵게되었다.

열무김치와 콩나물에 된장찌개를 섞어 고추장에 비빈 꽁보리밥은 도시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쌀밥을 먹을수 있게된 사람들이 보리밥먹던 지난날의 쓰라림을잠시 떠올리고 현재를 만족하는「그리운음식」임에는 틀림 없었으나, 역시 오래 먹기엔 맛없는 밥이었던가.

『쌀을 아끼자고 보리를 먹자먹자해도 국민들에겐 별로 호소력이 없읍니다. 몸에 좋으니까 먹자고 해야 합니다. 말로만 좋다고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다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참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연구소장 徐奇峰씨는 보리를 더 먹이기 위한 「묘안」을 지금 짜내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회에는 그 묘안을 한번 들어 보아야겠다. 【文昌宰기자】

肝炎은 여름을 노린다

바이러스性 保菌者 전국에 4백만명

急性은 감기증세비슷 安靜·고른營養섭취를

B型 만성화되면 癌유발도 개인위생 철저·豫防접종을

◇간염바이러스를 찾기위해 혈청을 살피고있는 金丁龍교수。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성 간염(肝炎)만큼 국민보건에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는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간질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고 특히 간암환자가 아프리카에이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바로 바이러스성 간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

바이러스성 간염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히 작은 병원체인 바이러스가 간(肝臟)을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이같은 환자가 매해 50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4백만명 정도가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는 보균자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국민의 11%정도가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대한의학협회(회장 文太俊)는 이같은 심각성에 대처키 위해 협회안에 延世大의대 柳在德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간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부터 8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바이러스성 간염 0%운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의협의 5개년 간염0%운동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 국제적인 수치거리인 바이러스성 간염을 추방하기위한것이다.

마침 여름은 바이러스성간염에 감염되기쉬운 철이기에 바이러스성간염의 정체와 치료 예방법을 서울대 의대 내과 金丁龍교수에게 알아 보았다.

〈정체〉 바이러스성간염의 병원체는 A형 B형 C형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형은 유행성을 갖는다해서 유행성 (또는 전염성) 간염, B형은 수혈을 할때 문제가 된다해서 혈청(血淸)성간염이라했다. C형은최근에 발견된것으로 B형과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A형이나 B형 C형을 가릴것 없이 모두 같은 전염경로를 밟는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전염〉 A형 B형 C형모두가 오염된 음식물 혈액 혈장(血漿)제제 주사기등을 통해 전염될수 있다.

A형은 감염된후 황달이 나타나는 며칠전까지 병원체를 배설하나 B형은 증세가 가신후에도 상당기간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아 계속 병원체를 퍼뜨린다. 전국민의 11%정도가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고 이중 6%정도가 B형간염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고있음이 최근의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률은 미국의 0·1%에 비해 무려 60배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증세〉 처음은 메스껍고 식욕이 떨어지는것이 보통이다. 식욕이 없어지면서 피로해진다. 밥맛은 물론 담배맛도 없어진다. 감기증세와같이 팔목과 발목, 무릎같은 관절이 쑤시며 미열이 나기도한다. 이같은 초기증세가 1~2주 계속되다가 오줌이 노래지거나 빨개지고 황달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바이러스성 간염증세이다.

이보다는 많은경우가 황달증세없이 그저 가벼운감기증세정도로 바이러스성 급성간염을 앓는일이 많다.

〈치료〉 바이러스가 원인이되기때문에 아직 뚜렷한치료법이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를 바이러스성 급성간염은 특별한 요법을하지않고서도 영양을 고루섭취하면서 충분한 안정과휴식을취하면 잘낫는다.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과 음식물을먹지말아야한다. 따라서약은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따라야한다.

바이러스성간염의 공포는 만성화 한다는데 있다. A형은 거의 잘낫는편이다. 그러나 B형의경우 5~10%에서 만성화해서 심한경우 간경변증과간암마저일으키게된다。 실제로 만성활동성간염의 84·6%, 간경변의 64·2%, 간암의 60·9%정도가 B형간염바이러스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것이 역학(疫學)조사결론이다. 바이러스성간염환자는 증세가 완전히 가셨다해도 최소한 1년정도는 과로하지말고 술이라든가 담배등 간에 해로운 식품을 멀리해야한다.

〈예방〉 개인 위생에 조심하는 소극적인 예방법과 간염예방백신을 맞는 적극적인 예방법이 있다.

소극적인 예방법으론 ▲날음식이나 끓이지 않은 물을 먹지 않는다. ▲손발을 자주 씻는다. 특히 용변후나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다. ▲과음과 지나친 흡연을 삼간다.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음식을 입안에서 씹어 아기에게 주지 않는다. ▲주사기바늘이나 침(鍼)은 1회용을 사용한다. ▲키스를 삼가는 일이다.

적극적인 예방법으로 꼽히는 간염예방백신접종은 81년 11월 美식품의약국(FDA)이 메르크(MS&D)社가개발한 H·D·박스를 정식인가함으로써 실용화됐다. 이 예방접종을맞게되면96%정도에서B형간염을예방할수있다.

현재 메르크社외에 프랑스의 파스퇴르社와 일본의 키타사토연구소, 영국의 비오젠社등이 간염백신을 개발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십자社가 간염예방백신을 개발중에 있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5일 대한의학협회의 건의에따라 간염백신을 희귀의약품으로인가, 정식 수입할수있도록 조치했다【李光榮기자】

美,살빼는약 販賣中止令

FDA、구토·腹痛·설사등 副作用

海外医学

美식품의약국 (FDA)은 지난 1·2년간 급격한 판매고를 올리던 각종 「살빼는약」(다이어트 필)의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FDA는 지난봄 각 다이어트 필 제약사와 판매업소를 상대로 내린 명령에서 다이어트 필은 일반식품이 아닌 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히고 모든 다이어트 필의 성분을 조사·분석할때까지 판매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 제약업소및 판매처는 다이어트필의 구성성분, 판매현황을 10일내에 FDA에 보고하라고명령했다.

다이어트 필은 원래 美노터댐대학 생화학교수몬마셜이 연구해낸것으로 밥먹기전 이 약을 먹으면 음식중 살을 가장 많이 찌게하는 녹말의 체내흡수를 막아 살을 찌지 않게 한다는것이다.

성분은 콩의 푸른부분에서 빼낸 단백질과 몇가지 다른 내용물을 섞은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푸른콩에서 빼낸 단백질은 녹말을 분해시키는효소인 아밀라제의 작용을 억제한다는것.

다이어트 필은 처음에는 비만증환자 치료용으로 병원에서만 쓰여졌으나 제약업자들이 이를 대량 상품화, 신문광고·TV선전과 함께 엄청난 시장을 갖게 된것이다.

광고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4백칼로리분의 녹말을 흡수시키지 않을수 있다고 선전하고있다. 때문에 살찌게 하는 가장 위험물인 밀가루음식, 쌀밥, 감자, 옥수수, 피자등을 사실상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이 선전들은 강조하고있다.

문제가 생긴것은 이 다이어트 필을 먹은후 가끔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난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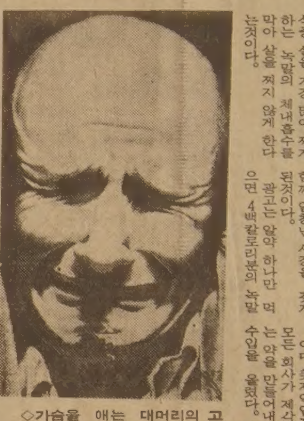
FDA는 결국 『다이어트 필은 체내에 들어가어떤 화학적 작용을 하는것이므로 단순한 음식물의범위에 묶어둘수 없다』고판단하고 이를 일단 판매중지시킨것이다.

FDA는 다이어트 필을 약품으로 분류한후 성분을 검토하여 제약회사별로 개별심사할 예정이다.

이미 美제약업계는 거의 모든 회사가 제각기 살빼는약을 만들어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제약업계도 이번 FDA조처로 좋은 다이어트 필만 살아남아 오히려 부진한 美의약계의 발전을위한 계기가되기를바라고있다.【[illegible]】

대머리에 朗報…머리칼 난다

美、高血壓藥 미노시딜、意外의 효과



◇가슴을 애는 대머리의 고민。 그러나 새로운 약의 개발로 새머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대머리는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의의사 안토니·자파코스타는 우연히 그의 대머리인 고혈압환자에게 미노시딜(Minoxidil)이라는 고혈압치료제를 투약시킨결과 한줌의 머리가 다시 돋아남을 발견했다. 그가 이런 사실을 「뉴잉글랜드 의약지」에 발표하자 일리노이大 피부과 여의사·버지니아·바이스는 미노시딜 요법을 禿頭症환자 29명에게 적용한 결과, 이중 17명에게서 머리가 다시 생겼다. 독두증이란 2백만명의 미국인이 앓고있는 대머리증상으로급속히머리가운데가한꺼번에 빠지는 병이다.

바이스는 완전 대머리에 4개월간 미노시딜을로션으로 만들어 바르자 『한웅큼씩 자라 머리가 만족할만큼 다시 자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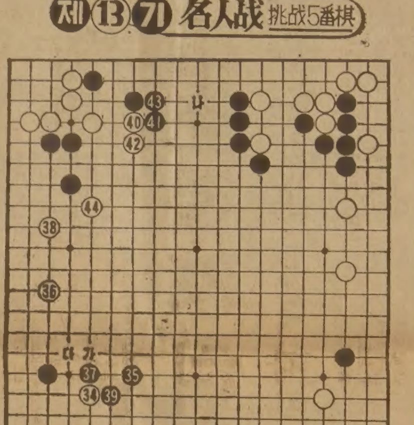
미노시딜은 제약회사인 업존사 제품인데 현재 이를 원료로 로션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이회사는 아직도 미노시딜의 어느성분이 머리를 나오게 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美·옴니誌】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 第5譜 34~44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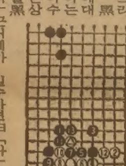
黑(名人) 曺薰鉉〈2勝〉



白34에 대한 黑35협공은 2분간에 결정한 적극전법이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지않으면 때이르게 뒤진 형세를 만회하기 어렵다. 白36은 10분. 물론 黑37을 허락하더라도 38에벌려서 한치씩 전진할 생각이다.

『白36·38은 이경우 적절했다. 보통정석대로 36을「가」자리에 뛰어나가면 참고도처럼 黑1이하13까지를 예상하더라도 좌변의주도권이 黑의수중에 들어간다』고 해설자 趙8단은 말한다.

白、준엄한공격개시



그리고 黑37에 대하여는 『이수로는 상변을 黑「나」근처에가 일수하면白「다」의 봉쇄를 당하여 옹색해지고, 黑은 39의로 좌하귀를 굳혀서 불만스럽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이때 도전자는 기세좋게 白40에 뛰어붙이고 42에뻗더니 44로써 좌상黑을 위협했다. 순간 名人의낯이 한껏 긴장되었다.

설마 白44를 예측안했던것은 아니겠지만, 白40에대한 黑41이 공연한오기였던 모양이다. 그까닭은 다음보에서.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161>

응달 ㊶

『즈이 집 사람이에요. 사모님이셔. 인사드려』

그제서야 일환이는 오목이를 주인 여자에게 소개했다. 더러운 부스럼딱지 내보이듯 얼굴을 찌푸리고 창피해서어쩔줄 모르는 일환이를 오목이는 차라리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뭐랬어? 필요한건 하나도 빠뜨리지말고 다사랬지? 제일 먼저 필요한것부터 빠뜨렸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좀 많을거야? 젠장 맹추같이…』

일환이가 눈을부라리고 오목이를 핀잔주었다.

『생트집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걸레를 돈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왜들 이래요.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없는 사람일수록 금실이라도 좋아야지 티격태격 싸움질이나하면 나 그런꼴 못봐요』

사모님이 점잖게 나무라고 쪽 넓은 흡웨어 자락을 양손으로 품위있게 살짝쳐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사모님이 안보이자 오목이는 본격적으로 따질 태세를 취했지만 일환이는 낭패한듯 우울한 얼굴로 문자방에 풀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다시 계단위에 난 문이 열리고 걸레를 한보따리 든 소녀가 내려왔다. 식모인듯 싶은 소녀는 사모님보다 몇배 더 거만하게 지하실 풍경을 한바퀴 훑어만 보고 말 한마디 없이 올라가 버렸다.

오목이가 방을 털고 쓸고 닦는 동안 일환이는 온다간다 말 없이 나가더니 쌀과 연탄을 사들여보내고 반찬거리를 손수 사들고 들어왔다. 오목이도 일환이가 먼저 말을 시킬때까지 절대로 말을 하지않을 요량으로 그런 것들을 말 없이 받아 챙기고 저녁준비를 했다. 서로 말을 안하니까 오히려 손발이 잘 맞아 그 동안 일환이는 어디서 사과궤짝을 얻어다 잘게 쪼개 연기를 내면서 연탄불을 피웠다.

그들이 밥상도 없는 저녁상에 마주 앉았을 때는 배가 고프다못해 식욕이 마비되어 있었다. 일환이 팔목시계를 보면서 처음으로 말을 시켰다.

『벌써 열시야. 사람이 좀 간단히 간단히 살수없나, 젠장』

흥, 예서 더 간단히 살고싶으면 거지나 짐승밖에 더 될까?

오목이는 속으로 즉각 이렇게 반발하면서도 그걸 입밖에 내진 않았다. 토라진 오목이 눈치를 흘금흘금 보던 일환이가 이부자리를 폈다. 화학섬유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때문인지 눈이 아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방바닥은 아직 찼다. 그러나 방은 외풍이 없고 아늑했다. 오목이는 일환이로부터 좀 떨어져서 누웠다.

『무슨 생각 하고있어?』

일환이가 물었다. 오목이는 대답대신 돌아누웠다. 일환이가 그녀의 등에 가슴을 붙이면서 다시 물었다.

『무슨 생각을하고있어?』

잔뜩 도사린 등에 와닿는 그의 늠직한 가슴의 감촉이 싫지않았다.

『고아가 고아한테 가까이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생각을 했어요』

『바보처럼』

그의 인정스러운 목소리에 끌려 오목이는 돌아누우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파묻었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않았다.

그들의 신방(新房)은 태고의 동굴처럼 아늑하고 녹녹하고 고요했다. 그가 마침내 사냥을 한 맹수처럼 거칠고 뜨거워졌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162>

응달 ㊷

오목이는 곧 감미롭고 만족스러운 수면속으로 빠져들었다. 일환의 피로와 긴장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 저어가다 난파한 배에서 믿음직한 뱃사공에게 구조된 것처럼 한꺼번에 맥을 놓아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잠이 모든 수면에서 깨어 잡아당기는 것 같은 수면에서도 오목이는 간간이 깨어서 일환이가 잠 못자고 뒤척이는 걸 느낄수가 있었다.

왜 저러지? 그녀는 자신의 안락한 잠을 방해하는 이런 이상한 뒤척임에 대해 그 이상은 생각할 겨를없이 다시 깊은 잠속에 빠져들곤 했다.

오목이가 눈을 떴을때 작은 창이 회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팔목으로 난 창이 그 정도로 밝으니 밝은 대낮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환이는 적이 잠들어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같았다.

어젯밤 처음 일환이와 같이 잤을 때도 일환이가 죽어있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던 생각이 났다.

그녀는 그가 죽어있지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 그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있을 뿐 이라는 걸 확인하고도 만일 그가 죽으면 어떨거나, 생각만해도 하염없이 슬퍼졌다. 바로 이틀전만해도 그의 삶과 그녀의 삶은 별개의 것이었다. 그를 찾고 있긴 했지만 못찾아도 그만이었고, 그를 찾는대신 그가 죽었단 소식을 들었대도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이들 사이에 그가 죽으면 따라 죽을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왜 그는 밤새도록 마치 잡아올린 물고기처럼 퍼덕거렸을까? 그가 깨거던 물어보리라. 부부 사이엔 숨기는게 없어야 하므로.

그러나 그녀는 곧 불안해졌다. 그가 밤새도록 뒤챈 까닭에 대해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엔 숨기는게 없어야 한다는 그녀나름의 도덕관념때문이었다. 자기만이 숨기는 걸 갖는 대신 그의 몇배의 사랑과 순종으로 갚으리라. 그는 이렇게 벼름으로써 자신을 위안했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 전라한 얼굴에 단 하나의 부착물인 손목시계를 보면서 눈을 부라리며 나무랐다.

『어, 늦었잖아? 밥도 안하고 깨우지도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가 일어나는 바람에 굴러떨어지다시피한 몸을 가누면서 오목이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기가 작은 사람처럼 자서 나 무서웠어요』

『바보같이…』

오목이는 서둘러 밥을짓고, 일환이는 이불도 개키고 방도 쓸고 어제 미처 정리하지못한 살림살이도 정리했다. 일환이는 그일이 재미나는지 휘파람을 불었다. 오목이는 그의 곡조에다 가사를 붙여서 가만 가만히 불렀다.

나혼자만이 그대를 알고싶소, 나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싶소.

그들의 노래는 땅속에 묻혀 비록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땅위에 사는 사람이 조금도 부럽지않았다.

출근하기전에 일환이는 오목이에게 뽀뽀하면서 넌즈시 돈봉치를 건네주었다.

『내 남은 재산 몽땅이야. 오늘부터 살림에 써. 아직도 장만할 거 천지니까 쓰다보면 속 상할거야. 그렇지만 첫술에 배부른가 뭐, 또 벌면 되지』

『어머 이렇게 많이요? 어제 그렇게 많이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자기 부자네』

오목이는 일환이의 남편노릇이 흐뭇해 어쩔줄을 몰랐다.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앵콜쇼
기간 : 7월 2일 부터
매주 금, 토, 일 저녁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 기적소리만
、망향·향수 · 무정한 여인 등 20여곡

거 구 장
매혹적인 저음의 노래로 지난봄"거구장"고객 여러분을 흐뭇한 정서에 젖게 해드린 인기가수 배성이 여러분앞에 다시등장! 앵콜쇼로 모시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후1시 ~새벽1시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742— 1618

잇단金利인하…利子수입激減
궁핍해진 大學 장학基金

缺損額 예산반영등 腐心 各대학
蹉跌없게 國庫보조 검토 文教部

잇따른 은행금리인하때문에 이자로 지급되던 전국 국·공·사립대학의 장학기금이 타격을 받아 학교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개 학교의 교외장학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그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지난'80년 6월까지만해도 연24%의 고금리였던 예금금리가 2년사이에 8차례나 인하되다가 지난 6월28일부터 연8%로 뚝떨어지자 이자수익의차질이심화되기시작했다는것。

전국 百90여法人、校外장학금 打擊

그러나 각대학에서는 장학금혜택자를 줄이거나 장학금액수를 하향조정할수도 없어 결손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는등 장학금을 종전대로 지급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있으며 문교부에서도 각대학의 장학재정에 결손이 생기는것을 막아주기위해 국고보조까지 검토중이다。

문교부집계에의하면 지난12월말현재 장학금 지급액은 학비감면이 5백17억2천만원(수혜자15만6천98명)、외부장학금이 1백24억3백만원(수혜자3만4천2백23명)인데 이중 외부장학금이 문제다。

현재 전국각대학에서는 1백90여개의 법인에의해 교외장학금이 운영되고있는데 운영방법은 ▲주식및 부동산투자 ▲금리(金利)증식등 두가지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이 운영하기에 편리한 금리증식형태를취하고있다。

따라서 장학법인에의해 지급되는 교외장학금은 대부분 출연기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은행에 예치、그 이자로 충당되어왔으나 금리가 대폭 인하되면서 자연히 장학금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빚은것。

高麗大의 경우 석탑장학금이 1억7천만원의 기금으로 은행에 정기적금、그 이자로 운영돼왔는데 금리인하로 타격을 입게됐고 이밖에도 1백20개의 교외장학금 대부분이 도 장학금 지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高大의 한관계자는 「교외장학금 거의가 점차 지급액수가 줄어들뿐 아니라 기금자체까지도 잠식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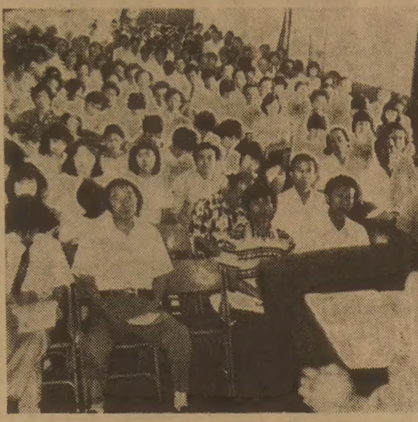
延世大도 대학의 장학혜택에 큰영향을 미칠것에대비、「현안문제」의하나로 내걸고 그대책에 부심하고있다。 延世大는 교직원장학금을 비롯 모두 1백74개의 교외장학금이 있는데 출연기금합계는 3억5천만원이다。

서울大는 1백32개 장학법인에의한 외부 장학금이 연간 2억5천6백만원으로 1천1백4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는데 대학의 한관계자는 「오는 2학기나 내년도부터는 지급액이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대학도 마찬가지로 全南大는 42종의 외부장학금가운데 규모가 큰 봉장학금이 4억2천만원의 기금을 정기예금시켜 연간 1억9백9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5백54명의 학생들에게 평균15만원씩 지급해왔으나 6·28조치로 이자수익이 4천4백만원으로 줄어들게됐다。

또 비교적 외부장학금이적은 서울의 世宗大경우 금리인하로인해 3천만원이줄어들게 됐는데 2학기부터는 부족분에대해 추경예산을 세워 정상지급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현상에따라 오는2학기부터 장학금지급액이 줄어들것을 예상、법인의 관리비나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정상적인 지급을계속하도록 지도하는한편 장학법인에 의한 교외장학금을학비감면 장학금형식으로 바꿔 전체수혜자에는 변동이 없도록하라고 각대학에지시했다。



◇醫保조합 事業場대표 간담회
13일하오2시 光化門교육회관 빌딩에서 의료보험조합 일부지역 사업장대표 간담회가 열려 각산업장대표들과 조합측, 병원측대표들이 적정 진료풍토조성을 통한 보험재정안정책에 관해 토의했다。

고교 補充授業 허용
文教部 학습遲進生 능력따라 班編成

문교부는 13일 고등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과목에따라 능력별(우열)로 반을 편성운영하고 학습부진 학생을위해 보충수업을실시하라고 각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능력별(우열반) 반편성은 학력격차가심한 과목부터 실시하며、보충수업도 우선 학습지진학생(5%)들을 선정해 학력격차가 큰과목부터 실시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지난80년7월 고교평준화 조치이후 성적의하향평준화를 시정하기위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보충수업을 운영상의어려움과 교육적 부작용(과외조장)을 이유로들어 전면금지했었다。

문교부는 이대책에서 고교 성적내신제 시행과 관련、성적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고 4지선다형의 평가방법에서 탈피하기위해 학교시험을 오는 시·도교위단위로 문제은행식 평가방법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도록 했다。

새마음 綜合病院 經營難에 문닫아

사회복지법인 경로복지원 (이사장 朴槿惠) 부설 새마음 종합병원(원장 金昇薰·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775)이 문을 닫는다。

경로복지원은 이사장 朴씨등 이사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하오2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들어 극심한 운영난을 겪어오던 이병원을 더이상 운영할수 없어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경로복지원이 운영하는 새마음한방병원은 진료를 계속하기로 했다。

李·張어음事件 3회公判
오늘 李圭光등 23명出廷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3회공판이 14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1회공판때 출정했던 李·張부부와 張여인의 형부인 李圭光피고인、전조흥은행장 林在琇피고인 동 조흥은행 간부、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피고인등 사채업자、공영토건간부、전안전기획부직원 宋正光피고인등 모두 23명이 출정한다。

미림골동굴에 鐵門
許可者이외는 통제

【安東】13일 安東郡은 지난 6월27일 경북도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安東郡北後面石塔洞산17 미림골 천연동굴의입구에 철문을 달고 감시원 1명을 고정배치하는 한편 학술조사등 문공부의사전승인을받은 사람에한해 출입을허용토록했다。

이동굴은 총길이 2백70m로 제5광장에는 수많은종유석과 석순이자라고 있으며 국내의 다른동굴에서는 볼수없는 30여평규모의 베이컨모양의 석순인 옥답(玉畓)이 있고 노래기 다슬기 딱정벌레등 각종곤충이 서식하고있다。【聯】

葬儀車、트레일러 받아
弔客등 18명 死傷

【大邱】13일상오5시50분께 경북 達城郡 花園面 邱馬고속도로 하행선 花園인터체인지 남쪽 (大邱기점 12·5km지점)에서 馬山으로가던 충북장의사 소속 충북9바1005호 장의차 (운전사 이약환·56)가 철재빔을 싣고 앞서가던 龜尾흥명공업사 소속 경기7바9127호 트레일러(30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장의차승객 박종호씨(64·淸州市 佳景洞16의3) 곽모씨(56·大邱市北區七星洞)등 2명이 그자리에서숨지고 박정순씨(51·여·淸州市佳景洞13)등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聯】

결핵 2년無料治療
영세患者들에 타격

【蔚珍】당국이 결핵퇴치를 위해 환자들에게 2년간의무료진료를 해주고 이진료기간동안 완치되지않는 환자는무료진료혜택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있어 영세결핵환자들에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蔚珍郡보건소에따르면 당국은 현재 각市·郡보건소에 결핵환자전담요원을배치、환자등록을 받아 이들에게 1년간 무료진료를해주고 1년이 지나도 완치되지않을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특수약품값만 환자가 부담하는조건으로 1년간 더 치료해주고있다는것이다。

蔚珍郡蔚珍邑竹邊里390 朴모씨(35)의 경우 지난80년6월부터 蔚珍郡보건소에 환자로등록돼 지난달말까지 2년간 무료진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않아 앞으로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할 실정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못하고 있다며 당국의 치료기간연장등 조치를 호소했다。

그런데 관내에는 현재 4백여명의 환자들이 무료진료를 받고있다。【聯】

버스 논바닥굴러
乘客35명 重輕傷

【鎭安】13일 하오1시15분께 전북長水郡溪內面 金谷里 속칭 동점대부락앞길에서 전북직행소속 전북5아1138호 직행버스 (운전사 유영진·34)가 2m아래 논바닥으로 굴러 승객하병열씨 (35·長水郡 溪內面長溪里)、溪內단협직원등 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운전사 유씨가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핸들을 급히꺾는순간 앞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일어났다。【聯】

닭목병 크게번져
5천여마리 斃死

【順天】전남順天지방에 닭질병인 바이러스성 후두기관지염이 만연、양계장의 닭5천여마리가 떼죽음을당했다。

지난10일 許仁九씨(51·順天市德興洞1)의 양계장 닭5천여마리중 어미닭 6백마리가 갑자기 호흡기가 막혀 떼죽음을 당한것을비롯、12일에는 崔德萬씨(36·順天市豊德洞819)집 닭 5천여마리중 어미닭 1천5백마리가 같은 증세로 죽었다。【聯】

아파트 엉터리竣工많다
大邱 40곳에 不法… 集中수사

【大邱】大邱지검특수부 朴永漢 부장검사는 13일 大邱시가 지난80년부터 지금까지 40개아파트가운데 27개소에 준공검사를해주면서 지하수개발및 지하수 저수조설치에대한 적법여부판정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의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준공검사를해준 확증을잡고 관계공무원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건축때 의무적으로 지하수배관을 상수도관과 별도로 설치토록규정되어있는데도 지하수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상수도관에 연결한 10여개소의 아파트에 준공검사를 해준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밖에도 상당수의 주택업자들이 아파트단지에 상수도 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지하수펌프의파이프를 늘과 지하 10~20m까지만 박아 식수난때 지하수를 뽑아올릴수없다는 사실도 캐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부는80년4월11일부터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식수난에 대비하여 50가구이상의 아파트를건설할경우 1일1가구 3톤의 비상저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할경우1일1가구 1톤이상의 지하수를 뽑아올릴수 있는 지하수개발시설및 저장탱크를 갖추어관할수도사업소에서적법판정을 받아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었다。【聯】

住宅건설 허위竣工검사
忠州시장 구속

【忠州】충북忠州경찰서는12일 忠州시장 金泰秀씨(54)를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업무상 배임동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시장은 富益주택 (대표申彦甲·50·서울東大門區新設洞)이 충북忠州市校峴洞131에짓고있는 단독주택 1백41채의 건축공정이70%밖에진행되지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19일 준공검사를 해줘 주택은행 忠州지점으로부터 4억4천8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융자받게해준혐의다。

또 金시장은 준공검사후인 지난해 12월30일 사례금조로 富益주택 대표 申씨로부터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혐의도 받고있다。

이사건과 관련、지난 5일 忠州시도시과장金聖培(39)건축계장 金容五(27) 富益주택 申씨등 3명은 같은혐의로 이미 구속됐었다。【聯】

刑집행停止중 詐欺
朴永復에 30년求刑

〔선고公判은 26일〕

서울지검 특수부 金成浩검사는 13일 형집행정지기간중 또다시 사기극을 벌여 재수감됐던전金鹿통상대표朴永復피고인(46)에 사기·공문서위조및 동행사죄등을 적용、징역3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10명에게도 최고징역5년에서 최하 징역1년까지를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10년이지만 다른죄와 경합관계에있고 朴피고인의 범행이 80년12월부터 82년1월까지 계속됐으며 그중간인 81년에 朴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을선고받아 확정됐기때문에 확정판결전 범행에 징역15년、확정판결후 범행에 징역15년등 모두 30년이 구형된 것이다。

朴피고인등은 형집행정지 기간중인 지난80년12월 亞豊물산등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해 신용보증기금 大邱지점장 成基彦씨(47)에게 4백만원의 뇌물을주고 신용보증서 8억원상당을 받아낸후 이를가지고 은행에서 3억7천만원상당을 부정대출한 혐의로 朴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재수감되고 나머지10명은 2월27일 구속됐었다。

朴피고인은 74년2월 74억원 부정대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10년이 확정되어 복역중 78년1월28일 간염당뇨병등으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풀려나 서울대병원에 입원치료중 이번범행으로 재수감 됐었다。

朴피고인은 74년 사건의 남은형기7년과 이번사건의 확정형량을 모두복역해야한다。

이사건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는 朴피고인등에대한 선고공판을 오는26일열기로했다。

나머지 관련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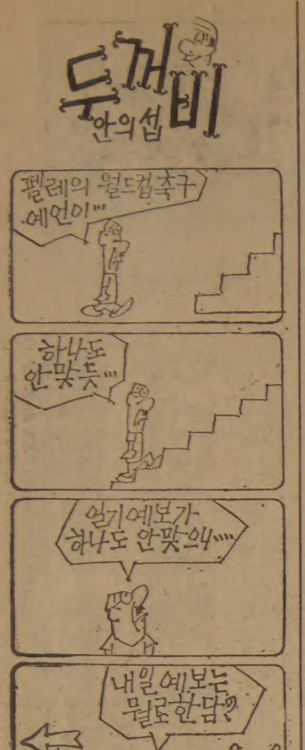
▲成基彦=징역5년 추징금 4백만원▲林泰熔(60·무직)崔載永(58·무직)=징역5년▲申東熔(46·무직)曺章年(38·朴씨 운전사)洪性鎔(39·무직)=각징역2년▲李順德(51·내연의처·요정 하산주인)金舜贊(48·요정 하산 종업원)鄭基成(63·인장업)朴昌默(40·무직)=각징역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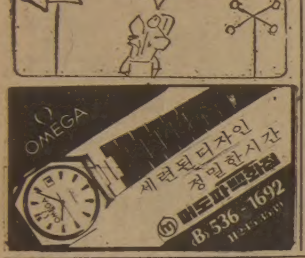
상급생이 殺人기합
"인사안한다" 11명에매질…1명숨져

【大邱】12일하오5시30분께 大邱市北區大賢1洞 慶北大기숙사신축공사장에서 시내D공고2년 정문영군(17)이 상급생으로부터 기합을 받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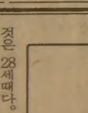
이날사고는 상급생인 동교3년 민모군(18)등 7명이 하급생인 숨진 정군등 11명을 불러 평소 태도가 나쁘고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고 기합을 주다가 정군의 배를 때려 일어났다。

경찰은 기합을 준 민군등 7명을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聯】





一片淨心
貞陵약수터 물아줌마 韓永福씨
새벽부터 精誠…장안에 効驗소문



「물아주머니」韓永福씨(55·사진·서울城北區貞陵洞87의6)는매일 새벽3시께면 어김없이 정릉의 「正心약수터」로 나간다。그것도소복차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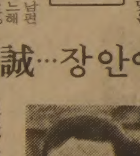
약수터에 다다르면 우선 주위를 말끔히 정리한다음 약수터에서 1백m쯤 떨어져있는 李太祖의 繼妃 神德王后 康씨의 능을 향해 좋은약수가 나오게끔 해준데 대해 감사의예를 드린다。 그리고 줄지어 서있는 「正心약수터」고객들에게 물을 나누어 준다。

韓씨가 이 약수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28세때다。6·25사변때 남편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있던 어느해 여름 神德王后가 꿈속에 나타났다。 『정릉동편 한 구석에 만병통치의 약수터가 있는데 지저분하게 널려있으니 가서 돌보라』고 계시를 한후 사라져버렸다는것。

이때부터 韓씨는 약수터를 돌보는데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웅덩이에 불과한 약수터주변에 돌띠를 두르고 벽돌처럼 축대까지 쌓았다。

약수터가 정비됨에 따라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났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信心을 담아 물을 정성껏퍼주었다。 韓씨의 정성이 깃들었기때문인지 『正心약수터의 물이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 물이 부족할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줄을이었다。

정릉에서 살다 서울江南區瑞草洞으로 이사간 50대 아주머니는 지금도 매일아침 택시를 타고 오고、중풍을앓던 70대할아버지는 이물을마신뒤 요즘은 조깅을하며 약수터에 오른다고 韓씨는 자랑한다。



그러나 약수터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약수터에 대한 韓씨의 정성이 깊어짐에 따라 韓씨의 생활은 쪼들어갔다。 한때는 생계수단인 구멍가게도 그만두어야 했다。 약수터에미쳐 변변히 공부도 시키지못한 아들은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

그동안 서울鍾路3街에 있던 30여평의 한옥도 팔았다。하지만 통금철폐이후 韓씨의 물퍼주는 손길은 신바람이 났다。 전날밤 10시께부터 아베크족을 비롯、물동이를 든 고객이 줄을 서기 때문이다。

『공공질서가 正心약수터에서 처럼 잘지켜지면 우리나라의 발전도 빨라질텐데…』30년간 약수터를 지킨「물아주머니」韓씨의 조그마한 소망이다。【朴榮基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그랜드 피아노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BONTEMPI이태리안 올갠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883-9407

나의豫想 빗나간 「伊3覇」 축하보낸다

PK失蹴만회 끈기…「蹴球의 시저」로

이번大會 技術上의前進 안보여
콘티가 最優秀선수 所信아직도
브라질 過信잘못…마라도나 機會많다

스페인·월드컵 펠레리포트

Sony Betamax SONY

<총결산>

브라질 혼자만이 갖고있던 월드컵 3번우승의 기록에동참한 이탈리아에 축하를보낸다。

이탈리아는 월드컵 3覇를 달성하기까지 고된 작업을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24개팀이 스페인에 왔을때 이탈리아는 우승후보로 거론되지 못했다。이탈리아는 전통있는 축구나라지만 우승가능성이 있는팀으로는 인정받지못했다。이탈리아인들 조차도 그들의 대표팀을 매도하기를 서슴지않았다。

엔조·베아르조트는 1차리그에서 가장 매력없는 팀을 이끌어 나갔다。2차리그에서부터 달라졌다。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물리치면서 그들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나는 준결승전서 폴란드수비가 이탈리아를 제압할 것으로 생각했으며、4강후보로 지목한 팀중에 단하나 살아남은 西獨이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칠것으로 예상했다。

두번다 나는 틀리고 말았다。페널티킥을 놓치는 등불길한 스타트에도불구하고 이탈리아는 2차리그이후 가장 끈질긴 팀이란 것을 증명해 보였다。그들은 대단히 강인했다。월드컵 챔피언으로 불릴 자격이있는 팀이었다。

3명의 탁월한 인재를갖고 있었다。이번 월드컵 최우수선수인 콘티와 시레아、그리고 부상으로 결승전에 나오지 못한 안토니오니다。

로시는 결승전에서 1골을 올려 총득점 6골로 득점왕이 되었다。위대한업적이다。

그러나 나는 콘티를 이탈리아팀에서、이번 월드컵에서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말하지 않을수없다。

이탈리아는 세계축구의 시저로 되돌아 왔지만 월드컵82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아르헨티나 월드컵이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솔직이 말해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스페인에서 어떤 새로운것이 있었을까。거의 없었다。

게임은 전진을 멈추고있었다。그것은 우리가 전에 모두 보았던 것들이었다。

2차리그서 좌절、진가를 완전히 보여주지못한 브라질의 팔카오와 프랑스의 티가나를 제외하고는 기억에 남을만한 새로운 선수가 없었다。

슬프게도 월드컵축구는 흥분시킬수 있는기능을 상실했으며 스페인에서 나타난기술수준은 지난4번의 월드컵대회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수없다。

결과는 이탈리아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기회주의의 승리였다。관심을 끌지못했던 이탈리아가 뒤늦게 스페인에 나타나 감탄부호를 찍고말았다。

나는 아직도 이번 월드컵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르세로나에서 브라질의 팔카오가 이탈리아와 맞서 2-2동점을 만든 때라고 생각한다。

22분이 남은 상황에서 브라질의 공격적인 기마부대가 잠시동안 자기보호를위해 보수적인 플레이를 했다하더라도 용서받을수 있었다。비기기만하면 준결승전에 오를수 있는 상황이었다。

브라질은 월드컵 82에의위대한 테스트를 잘못 처리한 과오를 범해 결국게임을 잃고 대회를 잃고 축구를 잃었다。너무나 자신만만했던 브라질은 이겨보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패배는 인간의 한과오로용서받을수있다。그러나 프로에게볼때 그것은 자살이며결코 받아들일수없는 것이다。

만약 브라질이 스페인서우승했다하더라도 과거의 브라질팀과 비교하여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마라도나 지코 루메니게와같은 스타·플레이어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그러나 마라도나는 이제 21세이므로 새로운면모를 보여줄 시간은충분하다。

◇대통령의 破顔 산드로·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中)과 엔조·베아르조트 이탈리아 축구팀 감독(右)이 월드컵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만찬에 답소하고 있다。왼쪽이 디노·조프 주장。앞에 순금제 월드컵이 놓여있다。【로마12日AP鑑=聯合】

伊팀 凱旋

群衆、로마軍團처럼 환영

新聞들 大書特筆

【로마12日AP·UPI=聯合】로마軍團이 세계축구의 정상임을 확인하는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을 품에안고 12일 개선했다。

열광하는 팬들이 벌떼처럼 운집한 치암피노공항에 착륙한 DC9 제트여객기에서 노령의 산드로·페르티니대통령이 만면에 미소를 띤채 선수단의 선두에서 트랩을 내려왔다。

엔조·베아르조트감독과 선수들이 트로피를 차례로 건네가며 땅에 내려서자 삼색기와 환영기치를 흔들던 수만군중의 환호성은 열기를 더했다。

이날의 환영은 古代로마군단의 개선식이 재현된것같은 인상이었다。

이탈리아 선수단의 귀환광경은 이날 우승의열기에들뜬 이탈리아全域에 생방송됐다。

페르티니 대통령과 선수단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는 군중들을 피해 환영식을 생략한채 황급히 공항을 떠났다。

1면 전단기사로 이탈리아 선수단을『영웅들』『전설적인 챔피언』이라고 극찬한신문들은 이날 승전보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극성스런 팬들로 인해 날개돋친듯 팔려나갔다。

로마의 코리에레·델레·스포트는 이날아침 준결승의對폴란드 승리때보다 30만부나 많은 1백70만부가 순식간에 팔렸으며 밀라노의 가제타·델로·스포트는 밤사이에 1백40만부가 팔렸다。

이탈리아주요신문들의 1면에는『태풍의 사나이』파올로·로시와 노장 골키퍼디노·조프 감독 엔조·베아르조트의 사진을게재했으며『파블리토』(로시의 애칭)의 역사적인 골』『스트라이커의 제왕』등의 제목으로 로시의 수훈을 찬양했다。

공산당기관지 루니타도『위대한 꿈의 실현』『이탈리아는 그렇게 야성적일수 없었으며 그렇게 아름다울수 없었다』는등의 제목으로 대표팀의 개선을 극구 찬양했다。

로시등 伊선수4명 올스타 11명에 포함

AP記者團 선정

【마드리드12日AP=聯合】제13회 스페인월드컵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은 이탈리아선수가 12일 AP스포츠기자단이 뽑은 11명의 월드컵 올스타에 선정됐다。

이탈리아의 골키퍼겸 주장인 디노·조프(40) 득점왕 파올로·로시、클라우디오·젠틸레와 풀비오·콜로바티등 4명을 월드컵 스타에 선정하는 한편 西獨의 스트라이커 칼·하인츠·루메니게、브라질의 루이징요와 후니오르 그리고 미드필더 지코등 브라질선수 3명도 이에 포함시켰다。

4-4-2전법에 따라 구성한 월드컵올스타는 다음과 같다。

▲GK=조프(이탈리아) ▲FB(4명)=젠틸레 콜로바티(이상 이탈리아) 루이징요 후니오르(이상 브라질) ▲HB(4명)=보니에크(폴란드) 플라티니 티가나(이상 프랑스) 지코(브라질) ▲FW(2명)=로시(이탈리아) 루메니게(서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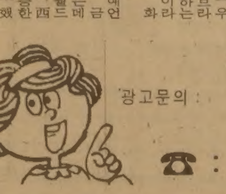
AP기자단은 제2팀진용으로 ▲GK에 다사에프(소련) ▲FB에 코스톨리(온두라스) 샌섬(잉글랜드) 칼츠(서독) 파사레야(아르헨티나) ▲HB에 지레스(프랑스) 아르딜레스(아르헨티나) 소크라테스및팔카오(이상브라질) ▲FW에 리트바르스키(서독) 마라도나(아르헨티나)등 11명의 선수도아울러 선정했다。

또 이번대회 최우수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클라인씨가 뽑혔다。

西獨점장이 콕스 決勝 정확히豫言

【본(西獨) 12日AP=聯合】미스터·콕스로 알려져 있는 西獨의 유명한 점장이 알리스·워르겐·볼프그람씨가 월드컵개막을 앞두고 西獨과 이탈리아가 결승전에서 맞붙어 이탈리아가 3-1로 우승을 차지하며 西獨의 브라이트너가 영패를 모면하는『체면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함으로써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볼프그람씨의 이같은 예언은 한 西獨화보잡지사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는데 그는 또 지난66년 런던월드컵대회에서도 잉글랜드가 西獨을 4-2로 꺾고 우승한다고 정확히 예언하기도 했다는 것。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533-2361

구원투수 金在博, 韓化살려

백호기 야구 11회까지 經理團타선 잠재워 9-8

◇決死的 홈슬라이딩… 東亞大-農協대전 東亞大 4회말 1死후 공격에서 주자를 2·3루에두고 9번 李東玩의 희생플라이로 3루주자 金龍珉이 홈으로 뛰어들어, 2점째를올리고있다。農協포수 金承洙가 중계악송구를 점프하여 잡고있다。

趙鍾奎 만루홈런 때리고도 잇단실책…下位打線에 굴복 經理團

圓光大 金京洙·金東徹 솔로호머등 浦鐵 잡아

東亞大 1년생 吳命錄 역투、農協 5대0완봉

만능스타 金在博이 韓國化粧品을 구했다。13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백호기쟁탈 제32회 전국야구대회 이틀째 1회전 경기에서 韓國化粧品 선두타자겸 유격수 金在博은 1회초 우월2루타로 선제점을 올리고 8회에 구원투수로 등판、폭죽처럼 터지던 經理團 홈런타선을 연장11회까지 4회동안 12타자 1안타 2삼진 2포볼 무실점으로 선방、韓國化粧品을 2회전으로 이끌어 올렸다。

韓國化는 연장11회초 1死후 6번 金龍九의 우월 2루타와 2死후 8번 朴鍾會의 중전 적시타로 결승점을 올려 9-8로 신승했다。

춘·하계 리그와 釜山시장기、서라벌기등을 석권、이번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經理團은 6회초 잇단 실책 2개로 승기를 놓쳤다。

6회초 韓國化는 4번李海昌이 포볼로 나가 5번 沈載元의 우전 적시타로 6-5의 리드를 잡았으며 잇달아 터진 6번 李光國의 중전적시타와 經理團 내·외야실책에 편승、8-5로 점차를벌렸다。

經理團은 1회말 2死후趙鍾奎가 아마 야구시즌 4번째 만루호머를 날리고 7회말 5번 鄭求善이 2점、8회말 禹京夏가 솔로홈런을 터뜨려 안타수에서 13-8로 우세를 보이면서도 간신히 8-8의 타이를 만들었다。

經理團 에이스 金始眞은 3회초 2死후 구원등판、8회동안 삼진11개를 빼앗으며 역투했으나 연장 11회초 韓國化 하위타선에 2안타를얻어맞고 무릎을 꿇었다。

圓光大는 2회말 집중3안타로 3점을 선제하고 4회말 1死후 7번 金京洙、7회말 2死후 金東徹의 솔로호머로 浦鐵 마운드를 통타、6-2로 승리했다。

東亞大는 1년생 우완 吳命錄의 역투에 힘입어 農協에 5-0으로 완봉승했다。吳는 農協32타자를 9회동안 3안타 1포볼 4삼진으로막았다。

◇제2일1회전

한국화장품	302 003 00·1	9
경리단	401 000 21·0	8

〈11회연장〉

▲홈런=沈載元(3회·2점·한화) 趙鍾奎(1회·만루) 鄭求善(7회·2점) 禹京夏(8회·이상경리단)

포철	001 100 000	2
원광대	030 200 10×	6

▲홈런=金京洙(4회) 金東徹(7회·이상원광)

농협	000 000 000	0
동아대	001 220 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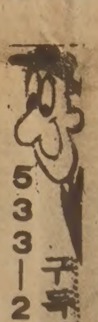
張美姬 속옷차림 車道배회

「巫女의 밤」 촬영

「진짜誤認」 운전기사 경찰인계 실랑이

영화배우 張美姬양이 4일 하오5시30분께 얇은속옷에맨발 차림으로도심한 복판인 신세계 백화점앞로터리 차도를 헤매 지나던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영화「巫女의 밤」(사진)(감독卞張鎬)에서 정신분열증을일으켜거리로뛰쳐나온대목의 촬영장면이었는데 영화촬영임을미처 알지못한 한 운전기사는 진짜 정신이상자가 뛰쳐나온 것으로 알고 경찰에 인계하기위해 차에 태우려 실랑이。이 장면은 그대로 영화필름에 수록됐다。행인들은 뜻하지않은 구경거리에『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한마디씩。



구독신청은 533-2361

4冠王趙治勳 天元戰도 8強에

名人戰선 趙-小林대결-가능성호려

올들어 13勝 4敗 勝率선 日本3位

徐奉洙·徐能旭 國手戰 同率 3勝 선두

바둑소식

◇趙治勳名人

◇徐奉洙王位

◇徐能旭6단

○…名人、本因坊、十段、鶴聖杯등 4개의타이틀을 지니고있는 趙治勳4관왕은 최근 天元戰도전권 토너먼트에서 8강에 진출하여 또 하나의 타이틀을 추가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天元戰은 北海道、東京、中日、神戶、西日本新聞등 지방지들이 공동주최하는 기전으로 일본 7대기전중 棋聖·名人·本因坊·十段이 5대기전으로 꼽히고 있으며 도전자의 선발과정은 리그전이 아닌 토너먼트형식을 취하고있다。

趙名人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8기 天元 16強戰에서 구또(工藤紀夫) 9단에게 집흑으로 한집반을이겨 후지사와(藤澤秀行) 棋聖對 苑田9단의 승자와 4강진출을 다투게 된다。

현재 本因坊戰에서 天敵이라는 고바야시9단의 도전을받아 2승2패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있는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碁聖戰의 도전권마저 따놓는등 日本棋界의 최강으로 군림하고있다。

한편 日本의 바둑잡지 週刊「碁」는 금년들어 6월25일까지 기사들의「승률 베스트10」과「최다승 베스트10」을 발표했는데 趙名人은 승률서 3위、최다승서 6위를 마크。

7단이상으로 12국이상대국을가진 기사를대상으로한 승률통계에서 趙治勳9단은 13승4패로 승률 76.5%를 기록、12승3패(80%)의 羽根泰正9단이나 10승3패(76.9%)의 小島高穗9단에게 다소 뒤진 수준。그러나 趙名人의 승률이 대부분 정상급기사들과의 도전기에서 이룩된것이고 보면 그의 승률은 경이적이다。그의 강력한 라이벌인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이 21승9패(0.700)로 8위에머문것이 이를 말해준다。

고바야시9단의 경우도 전기와 일반리그등에서 다수의 대국을 가져 최다승 레이스에서는 단연톱을 달리고있으며 사까다(坂田榮男) 9단이 14승7패로 2위를 차지하고있다。

○…일본本因坊位도전7번기에서 趙治勳名人·本因坊과 2대2의 팽팽한대결을 벌이고있는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은 名人位를 두고 趙名人과 싸울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제7기 名人戰도전자리그에서는 오오다께(大竹英雄) 碁聖이 5승1패、고바야시9단이 4승1패、林海峯9단이 4승2패의 순서로 달렸으나 지난달 21일 고바야시9단은 하위인 혼다(本田) 9단(당시 1승4패)에게 패배함으로써 4승2패를 기록했다。

물론 고바야시9단이 도전자가될 가능성이 전연없지는않으나 선수인 오오다께9단은 비교적 손쉬운상대인 羽根9단(4승3패)및 武宮9단(3승4패)과의 대국을 남기고있는데 비해 고바야시9단은 사까다(坂田)9단및 林海峯9단과의 대국을 남기고있어 큰 이변이 없는한 오오다께9단이 도전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제26기 國手戰本選은 총21국중 절반이 두어진 현재 徐奉洙7단과 徐能旭6단이 3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姜勳4단과 李相澈4단이 2승1패로 2위를 바짝 쫓고있다。

徐奉洙7단은 30일 梁相國6단과의 대국에서 집흑으로 2백71수만에 6집반을 이겼다。

○…초대 棋王 鄭昌鉉7단이 간암으로 백병원 1110호실에 입원중이다。건장한 몸집에 호쾌한 성격、면도날같은 기풍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鄭7단은 최근 이상한 증세를 느끼고 진찰한 결과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초기증세여서 수술을 받으면 무난히 치료되리라고。

그의 連棋를 좋아하던 팬들은 그의 병세도 신속하고 명쾌하게 쾌유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6회 전국아마10강戰이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기원대회장에서 열린다。여기서 뽑힌 1위부터10위까지의 아마기사들은 月刊바둑誌의 독자투표에 의해 선정된 10명의 전문기사들과 프로-아마對抗戰을 벌이게된다。

이대회에는 전국의 바둑팬이면 누구나 참가할수있으며 신청은 한국기원출판부(☎74 8826)。신청마감은 16일 하오5시까지이며 참가금은 5천원。

○…대학생들의 바둑제전인 전국대학바둑覇王戰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국기원대회장에서 열린다。

대학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수있는 이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열리는데 단체전의 경우 3명을 1개팀으로하여 동일대학에서 2개팀까지 출전이 가능하다。참가신청은 한국기원 사업부(☎0150)。【梁平기자】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745-205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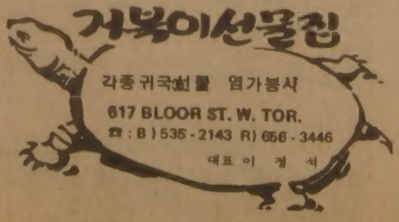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경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425-5656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公務員 봉급 내년 5~7%線 인상

企劃院 새해豫算 歲出기본所要案서 밝혀져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정부의 한자리숫자 물가안정방침에 따라 10%이하선에서 억제될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제기획원이 취합、검토중인 내년도『세출예산 基本所要』에 의하면 83년도 예산상소요인건비는 8천4백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1%인 9백8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돈중 일부는①공무원보수체계조정(지난해4월)에 따른 추가소요재원과 ②공무원증원에 필요한 재원으로도 쓰여져야하기때문에 전액을 봉급인상재원으로 쏟을수는없는형편이며 추가소요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재원으로해서 봉급인상률을 결정해야할 형편이다.

이런사정을 감안、예산당국은 추가소요규모를 억제해서 봉급인상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할경우 가능한수준인 7%내외와 예상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수준인 5%사이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는 내년도예산을 초긴축예산으로 짜야할뿐아니라 한자리수 물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봉급의 대폭적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게 인상률을 책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은 5~6%로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5~7%사이에서 결정될 경우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웃돌게될 전망이다. 지난해는공무원 봉급인상률이 9%였으나 물가상승률(소비자)이 12.6%에 달해 봉급이 물가만큼 오르지못했었다.

정부는 불황에 따른 세수의 자연감소와 6·28조치에 따른 세수감소등으로 내년예산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치 않을수없는 형편이며 이에 따라 경상비지출과 사업비 축소등과감한 예산절감을할계획이다.

소비자物價 5~6%線 上昇예상

"새 종합博物館 세워야"

學術院건의 自然史·人類學등 고루展示하게

學術院은 中央廳자리에 들어선 새 國立中央博物館을 自然史박물관과 歷史박물관의 성격을 갖춘 綜合박물관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2일 열린 國立中央박물관의 이전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 맞추어 건의서를 낸 學術院은 세계적인 추세를감안、현재의 考古美術박물관의 방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歷史및 고고미술、自然史、植物·動物·鑛物學、人類學박물관등 3개의 박물관을 함께 갖출것을 촉구했다.

학술원은 또 종합박물관의 기본성격을 硏究박물관으로하고 부총리급의 총재아래 장관급의 各別館長을 두고 각분야의 전문교수를 전임또는 겸임으로 임용하는한편 박물관원의 지급도 대학교수와동일하게 책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학술원의건의에따르면종합박물관은 수집된 자료의보존과 전시뿐아니라 연구와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해당분야의 대학원 강의를 맡으며 초·중·고교의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되도록 해야한다는것. 학술원은이 박물관이 民族文化硏究機關의 하나일뿐더러 시민의 문화센터이므로 외국의 중앙박물관처럼대부분의예산을 국가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입장료등은 무료로하며 민간인들의 협찬을 장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원로 碩學들의 중지를모아 작성한것으로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때에 갖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계기로 樂器、衣裳등 民族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증받아 특별전시실을 둘 것을 권하고 있다.

한 학술원회원은 세계유수의 박물관 가운데서 지금의 중앙청보다 넓은 곳을 찾을 수 없다고 전제한다음 內實도 갖추지않은채 무조건 큰 건물로 성급히 옮기는것은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국립중앙박물관강당에서 열린 國博의 중앙청이전에따른 공청회에서도 학술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주로 거론됐다.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한 각계인사들은①중앙청으로 이전하기 전철저한준비단계를거쳐야하고②現박물관의 기능과 성격을 대폭 확충해야하며③중앙청을 헐어내고 새로 짓거나 다른곳에 새로 짓는 방법등을 강구해볼것을 권했다.

내달 韓·佛 外相회담

서울서、高速電鐵참여등 經協논의

李範錫외무장관과 클로드·셰이송프랑스外相은8월중 서울에서 韓佛외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문제등 상호관심사를 협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셰이송외상이 8월중 한국을방문、李장관과 양국외상회담을갖고 현안문제를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면서『구체적인 訪韓일정은 아직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소식통은『프랑스는 서울-大田간의 高速電鐵프로젝트등 우리나라의 제5차5개년 계획및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참여하기를 강력히희망하고있다』면서 이번 외상회담에선 경제문제가 주로논의될것으로 전망했다.

뮤지컬 아동극 파브르의「곤충기」『달려라 티나』한국 公演

18·19일 세종회관

한국일보社는 롯데제과·한국국제문화협회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극예술단체인 극단「호리호크·아카데미」를 초청、오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公演을 갖습니다. 지난81년 11월에도 내한하여 뮤지컬「춘향전」을 공연한바 있는 호리호크 劇團은 1932년 창단되어 수많은 정상급 연극인들을 배출해 냈읍니다. 이번에 공연하게될 아동극「곤충기」는 장·앙리·파브르의 名作 昆虫記를 日本人作家가 각색、숲속의 곤충세계를 의인화하여 그들사이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그리고 갈등과 비리등을 그려내고 있읍니다.

本公演은 특히 姉妹紙 소년한국일보의 창간22주년을 맞아(주)롯데제과·한국국제문화협회가 兒童들에 의한 兒童들만의 兒童劇활동이 부진한 극예술계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기획하였으며、「메사」「소년한국」의 창간을 기념하여 전공연을 무료공개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聲援있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 배포계획은 별도발표함)

△공연일시 1회:7·18(일)15시 2회:7·19(월)15시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姉妹紙 소년한국일보 創刊22돌 기념으로 無料공개

主催: 한국일보社 롯데제과주식회사 국제문화협회

後援: 대한항공(주)

地軸을 뒤흔든 "이탈리아 萬歲"

◇11일 제12회스페인월드컵축구 결승전에서西獨을3對1로완파、우승컵을 차지한 이탈리아선수들이 기쁨에 넘쳐 환호성을 올리며 활보하고있다. 【마드리드12일UPI聯合】

"장마철 지하철事故막아야"

國會內務委 安全대책 추궁

답변 "監理團설치 不實방지"

국회는 12일상오 內務委를 열고 金聖培 서울시장으로부터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안전대책및 서울市政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趙鍾昊 鄭男(이상民正)徐淸源 朴寬用 柳畯相 柳寅範(이상 民韓)李成一(국민)李龍澤의원(議政)등은 지하철공사의 안전설계와 施工여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하철의 工期단축을 재조정하며 ▲지하철工法工費를 修正하고 ▲부족한資材의 원활한공급을 촉구하면서 안전점검 專擔用役회사의 설립등 安全工事對策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李龍澤의원은『施工을맡은 업체들이 下請에 下請을 거듭주는 현상으로 不實抽速공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공사를맡은 23개 건설업체의 은행負債額과 시중 私債사용여부、재무구조등에 대해 물었으며 鄭男 趙鍾昊 朴寬用의원등은▲서울시의 公害대책▲서울市廳의 江南이전여부▲서울市인구억제 정책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金聖培서울시장은『지하철사고의 再發을 막기위해 모든 기능을 동원、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工期를 서두를 경우의 문제와 시민 불편과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등 工期를 늦출 경우의 문제등 양쪽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작업시간 연장이나 工法변경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현재 지하철안전 점검반에는 지하철공사가 취약한 지역이 26개 工區、위험하다는 지역이 2개 工區로 보고가들어와 충분한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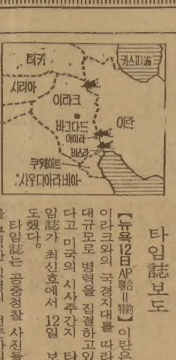
金시장은『앞으로 지하철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해 年2회 施工관리상태를 점검、不實업체로 판명될때는 지하철공사를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히검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또 지하철공사 監理團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市廳의 江南이전 계획변경에대해 도시계획법상의 변경이아니라 수도권인구억제강화방안등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留保된것이라고 밝혔다.

金시장은 이에앞서 보고를 통해『서울시 지하철공사공정이 현재 40~70%로서 안전관리상 가장어려운 싯점인데다 앞으로 다가올 雨期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雨期의 신속한 수습과 안전대책의 강화를위해 공사현장소장의 권한을 강화、교통統制權및 안전상필요시 先補強措置權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이란兵力 이라크國境 집결

타임誌보도



【뉴욕12日AP聯合=特約】이란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를 따라 대규모로 병력을 집결하고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誌가 최신호에서 12일 보도했다.

타임誌는 공중정찰 사진들을 분석한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이란이 빠르면이번주중에 이라크침공을 개시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보도는 이란과 소련국경에 배치된 8개사단을 포함하여 이란전국에서 차출된 군부대가 이장소로 신속하게 이동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진은 이란군이 1천1백25km에 달하는 이란·이라크 국경을 따라 3지점에서 공격형태를 취하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타임誌에따르면 이 3지점은 이라크의 주요석유시설이 있는 바스라港부근과 중부의 아마라부근및 북부의 쿠르드반정게릴라 출몰지역이다.

社会漫評

「물받기」用…「물난리」用

美의「仲裁」방해땐 PLO와直接協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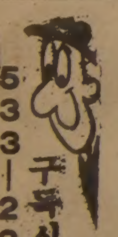
레이건、이에親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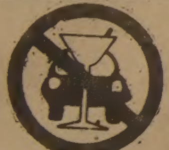
【뉴욕11日聯合=特約】레이건미대통령은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만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베이루트 사태중재노력을 방해할 경우 미국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직접협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11일 보도했다.

타임지는 최신호에서 중동소식통들을 인용、레이건대통령의 이같은 경고서한은 최근 새뮤얼·루이스 이스라엘주재미대사를 통해 전달됐으며 최근수년간 美대통령이 이스라엘지도자에게 보낸 것중 가장 강경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전했다.

地平線

근 한달、텔레비전 먹을 통통히 보았다. 매일처럼 밤늦게 방영되는 월드컵축구의 녹화중계가 저녁의 생활리듬을 흐트러뜨린다. 그러더니만、대망의결승전은 새벽 5시30분에 브라운관을 탔다. 축구의 극성팬은 아니지만、놓칠수는없다. 그래서한여름밤의 짧음을 새삼 실감한다. ▼더분에숱한「妙技」를보았다. 축구의 意外性은 언제나가슴조이게 한다. 스코어를알고보는 녹화필름인데도、그라운드의 열기가금방와 닿을것만 같다. 그것은「발」과「두뇌」로 연출하는 한편의 드라마다. 전세계 10억의 축구팬을 TV수상기 앞에 묶어 놓는 마력이거기있다. 어느덧 저 열기속에 우리 선수들이 뛰어들수 있었다면-하는 안타까운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구、우리나라 축구 팬을생각하여 씁쓸했던 것은、작 월드컵 무대를 놓쳤다는 것보다、월드컵에 때맞추어 팬들의 관심을 끌만한 국내대회가 놓이나 열린 점일지도 모른다. 국내 유일의 프로·팀까지 참가하여 벌인「대통령배 축구와 해외온·스타戰」. 그 현장중계와、녹화중계로 보여준 축구는너무나 대조적인것이었다. 같은축구가 그렇게 다를수도 있다니…. ▼참판과 자탄속에 월드·컵은 막을 내렸다. 역대 대회중 가장 異變이 많았다는 갖가지 기록을 외신은 보내 오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헝가리-엘살바도르戰의 10-0 전적이. 54년 헝가리-한국戰의 最多득점 기록 9-0을 깼다는 소식. 근20년 보유 했던 한국축구의 그 기록은、단한번 월드컵 출전에서 얻은 것이지만、그 몇해전 처음 출전했던 런던·올림픽、對스웨덴戰의12골 零敗기록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흔히들 월드컵에 비하면 올림픽은 시골 축구대회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프로를 포함한 대회와、아마만의 대회는 격차가 날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축구는 그 올림픽 출전마저 뜸한 형편이다. 축구가 國技중의 하나라면 무슨 수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를위한「戰略」을 짜자면 손에닿는 골을 향해 슛을 날리는것이 첫째일것 같다. 우선은 아마만의「시골대회」부터 공략하는것이다. ▼우리의축구수준이 오르기는 했지만、월드컵은 아직 너무 멀다. TV화면에서 프로축구의 화려함을 보면서 절감한 것중의 하나는、이 싯점에서 태동하는 한국 프로 축구에의 의문이다. 그「餘力」까지 합쳐、6년뒤의「시골대회」를 겨냥하도록 권하고 싶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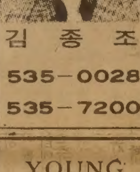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여름철 특별세일

45% Off! Noritake

7월10일(토)~8월7일(토)까지 (1달간)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40%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656-4315 Mrs. 최

아드리아海 女神이 게르만 闘魂을 눌렀다
월드컵 「勝者」와 「敗者」…열광의 뒤안길

◇극성 팬들「분수대自祝宴」 로마시 스페인 광장앞 라·바카시아 분수대에서 벌어진 승리자축연. 이탈리아 우승의 기쁨을 가누지못하고있는 극성축구팬들이 분수대안에 들어가 목욕을하고 지나가는행인에게 승리의 물세례를 퍼붓고 있다. 【로마12日UPI特約=聯合】

아드리아海 여신이 게르만투혼을 눌렀다. 찬란했던 로마제국의 영광이 용감무쌍한 게르만전사를 꺾었다.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판가름난 90분간의 한판승부는 喜悲가 엇갈리는 뚜렷한 승패의 명암을 이탈리아와 서독에 던졌다. 승리의 환희에 취한 광란의 로마시민들은 심야의 횃불행진을 벌이며 「로마제국의 영광부활」과 이탈리아만세를 외쳐댔고 패배의 통분을 삼켜야만했던 독일민족(서독과동독)은 2차대전이후 최대의 울분과 비탄속에 빠져있다. 불안한 政情을 유지해온 이탈리아정계는 이번우승으로 정치안정의 덕을보게되었다. 하지만 오는9월의 분데스리그전을 앞두고 있는 서독축구계는 벌써부터 팬이 줄어들까봐걱정이 태산이다. 열광의 경기장과 두나라 표정을 외신을 종합, 엮어본다.

마드리드 現場
양국元首도 응원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우승하자 스페인의수도마드리드는 마치 로마의일부를 옮겨다놓은듯했다. 로마에서 40여대의 전세비행기로 응원차 마드리드에온 수천명의 이탈리아 극성팬들이 마드리드중심가를 꽉메운채 『이탈리아만세』를 외쳐대며 대형국기를 흔들어대는 바람에 마드리드는 이탈리아 국기색깔의 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이들중 몇몇은 월드컵트로피복제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우승이확정되자 이컵을 하늘높이 치켜올리기도 했다.

○…주최국 스페인과 결승전참가국 이탈리아와 서독의 국가원수3명은 붉은 카핏이 깔린 특별히마련된 로열·박스에서 시종게임을 지켜보았다. 3명중 가장 열성적으로 자기나라팀을 응원한인사는 이탈리아의페르티니 대통령. 85세의 노구를이끌고 관전한 페르티니 대통령은 아마도 이날게임을 경기장에서 직접 지켜본 11만명의관중에서 가장 나이가많은 관중의한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가 골을넣자 발을 굴러 환호했으며 이탈리아가 선전할때마다 양팔을 들어 특유한제스처로 이탈리아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슈미트서독수상은 시종 근엄한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슈미트수상은 서독이 패배하자『이탈리아 승리는 당연하다. 이탈리아는 경기전반을 통해 시종 서독을 압도했다』고 서독팀의 "패배를 깨끗이 시인했다.

○…대망의 월드컵을 이탈리아에 넘겨준 서독팀은 커다란 충격을 받은듯 실망한 표정으로 베르나베우경기장을 떠났다. 스위퍼인 스틸리케는 기자들의 코멘트요청에 성난얼굴로 브라질인 심판이 이탈리아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이커 피셔는 도무지 믿을수 없다면서 아직도 꿈속에 빠져있는듯 넋을잃은표정으로 버스에 올랐다.

○…월드컵패권의 사령탑인 이탈리아의 베아르조트감독(55)은 우승이 굳어지자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벤치에서 벌떡일어나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베아르조트감독은 경기종료전부터 코치들을 껴안고기쁨을 나누다가 경기종료와함께 선수들이 몰려와 헹가래를치자 어쩔줄 몰라하면서도 스탠드에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답례를 표시하기도했다. 한편 경기종료후 사진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경기장으로 몰려들자 이를 말리려는 경찰과 가벼운 충돌을 빚기도했는데 이탈리아우승의 주역인 로시는 선수들과함께 맨뒤에서 그라운드를 돌면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손을흔들며답례하기에 정신없었다.

○…마드리드의 월드컵 결승전을 관전한 수천명의 이탈리아 축구팬들은 이탈리아가 서독에 3대1로 승리하자 마드리드 거리의 노점에 진열된 기념품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노점상들은 이탈리아·서독경기의 종료휘슬소리가 울린지 수분만에『이탈리아 우승』이라고 써어진 T셔츠를 가게에 내놓았으며 다른 상인들은 월드컵 우승트로피의 복제품들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狂亂의 시민 횃불大行進 伊
2차大戰후 최대의 悲嘆 獨

이탈리아 表情
政局安定에도 도움

○…이탈리아가 대망의 월드컵트로피를 안게된 12일밤(현지시간) 로마거리로 뛰쳐나온 로마시민들은『이번우승은 로마제국영광의 부활이며 로마제국이 세계를 정복했던 역사에 버금가는 쾌거』라며 서로 어깨동무를한채 이탈리아국가를 소리높여 합창하며『이탈리아만세를』연거푸 외쳐댔다.

○…이탈리아 우승이 확정되자 로마에서는 시내곳곳에서 횃불행진이시작되었고 약30만명의 시민들이 빨강·초록·흰색의 이탈리아 국기를 흔들며 로마중심지로 몰려들어 승리의 향연을 벌였다. 한편 나폴리에서는 항구에 정박중인 모든 선박이 일제히 뱃고동을 울려 승리를 축하했으며 거리곳곳에서는 즉석축하파티가 열려 포도주와 맥주가 동이 났다. 흥분한 젊은여성 축구팬들은 임시특별무대에 올라 옷을 벗어던지는 즉석 토플리스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우승으로 로마의 명물 트레비분수도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았다. 수많은 영화장면으로 세계의 명소가되버린 트레비분수대주위에는 수백명의 열광하는 이탈리아축구팬이 모여들어 승리의환호를외치며 분수대의 찬물속에 뛰어들었다. 대리석분수대는 이탈리아 국기로 뒤덮였고 물속에뛰어든 사람들은 바께쓰로 물을 퍼서 지나가는행인들에게 때아닌 물세례를 퍼붓기도했다.

○…불안한 정정이 계속되었던 이탈리아정계는 이번우승으로 톡톡히 덕을 보게 됐다. 이탈리아주재 한 서방외교관은『이번 승리가 이탈리아 정치안정에 도움을줄것은 확실하다. 축구는 이탈리아인에게 있어 게임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축구와 이탈리아정치와의 밀접한 관계에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탈리아국내에서 TV중계를통해 게임을시청한 수백만 이탈리아인들은 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이 경기장에서 게임을 직접 관람하면서 이탈리아인 특유의 제스처로 국가적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것을 TV에서 봄으로써 현정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수있었다. 한편로마에 남아있던 스파돌리니 이탈리아 수상도『이탈리아의우승은 이탈리아인의 모험과 용기와 독창력과 상상력에대한 보답』이라고 말해 월드컵우승이 이탈리아인의 단결과 이탈리아 정치안정에주는 상징적의미를 강조했다.

○…이에앞서 12일 결승전이 진행되었던 90분동안 로마는 죽음의 도시였다. 자동차는 다니지도 않았고 거리엔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아 로마전체는 긴장의 정적에 휩싸였다. ANSA통신사 마저도 뉴스공급을 중단하고 전사원이 TV앞에 앉아 월드컵트로피의 향방을 지켜보았다.

◇歷代 결승전적

회수	연도	개최국	전적		
1	1930	우루과이	우루과이	4-2	아르헨
2	1934	이탈리아	이탈리아	2-1	체코
3	1938	프랑스	이탈리아	4-2	헝가리
4	1950	브라질	우루과이	2-1	브라질
5	1954	스위스	西獨	3-2	헝가리
6	1958	스웨덴	브라질	5-2	스웨덴
7	1962	칠레	브라질	3-1	체코
8	1966	잉글랜드	잉글랜드	4-2	西獨
9	1970	멕시코	브라질	4-1	이탈리아
10	1974	西獨	西獨	2-1	네덜란드
11	1978	아르헨	아르헨	3-1	네덜란드
12	1982	스페인	이탈리아	3-1	西獨

월드컵通信

◇答禮하는 英雄들 西獨을 3대1로 꺾고 월드컵 3覇의 偉業을 이룩한 이탈리아선수들이 12일 월드컵을들고 베르나베우경기장을 돌면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손을흔들며 답례하고있다. 【마드리드12日UPI特約=聯合】

로시에 黃金축구화

○…이번 결승에서 자웅을 겨루었던 이탈리아와 서독은 공교롭게도 참가팀중 가장인기가 없었던 팀이었다. 이탈리아팀은 참가하기 전부터 승부조작등의 스캔들로 팀의명예가 얼룩진 팀이었고 서독은 예선초반에 복병알제리에2對1로참패, 인기가갑자기 떨어져 버린 팀이었다. 세계축구팬들은 깨끗한경기매너와 엄격한 팀기율을가진 서독팀의 분전을기대했으나 서독이 알제리에패하자 그기대감은 서독팀에대한 저주가 되버렸기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파올로·로시는 최우수선수와 최고득점의 영예를 함께 안았다. 로시는 체육기자들이 선정하는 이번대회 최우수선수선출에서 압도적다수로뽑혀 4천달러상당의 황금공 트로피를 받았으며 스포츠용구사들이 최고득점자에게 제공하는 3천7백달러 상당의 황금축구화를 받는등 경사가 겹쳤다.

日·美인터페론技術 스파이

【東京12日=宋孝燮特派員】 일본의 시사통신은 12일 美사법당국이 제약제로써 주목을 끌고있는 인터페론의 제조기술을 빼내기위해 일본의 녹십자사등 2개의 제약회사가 미국의 제약회사에 수십만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고 美디트로이트 뉴스를 인용, 보도했다. 일본의 유명제약회사인 녹십자는 유전공학으로 제조된 인터페론의 상세한 제조기술을 빼내기위해 미국의 제약회사 사원에게 새로만든 제품을 훔쳐오도록 의뢰, 수10만달러를 제공한것으로 알려졌다.

안테나

美에 親臺灣캠페인

中共은 11일 미국의극우보수정치인들이 美국무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새로운 反共·親臺灣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은 이날 워싱턴發 기사에서 상당수의 美보수정치인들이 최근 레이건행정부에 대해 미국무기의 對臺灣판매를 종식하라는 中共측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北京=聯】

美·이스라엘 25年이래 "最惡"

찰즈·퍼시 美上院外交委위원장은 11일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관계가 지난25년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TV인터뷰를 통해 작년말 자신이 메나헴·베긴 이스라엘 수상에게 美·이스라엘 관계가 1957년 수에즈운하 위기이래 최악의 상태였다고 말했음을 상기시키고『그이상 더 악화되리라고는 생각지않았으나 더 악화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퍼시위원장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은 전쟁수행에 대해 국론이 갈라져있음을 지적, 『이번 레바논침공은 이스라엘版 월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워싱턴=聯】

美외교政策硏 주장
"유럽·日 배치 美軍 감축 自國 安保책임 요구해야"

【워싱턴12日AP聯合=特約】미국은 서유럽에 배치된 美지상군을 감축하고 나토국가들과 일본에대해 自國安保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美외교정책연구소가 11일 밝혔다. 미국의 정치군사문제 전문가인 로버트·J·헹크스 前해군제독은 한 분석보고서에서『기본적인 서유럽의 방위는 서유럽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현재 서유럽에 배치하고있는 핵무기·비행장시설은 그대로 두되 일반병력은 30만명에서 6만명으로 감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감축은 서유럽국가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수있도록 10~15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海外토픽

英여왕 寢室에 怪漢침입
10분간 對話나누다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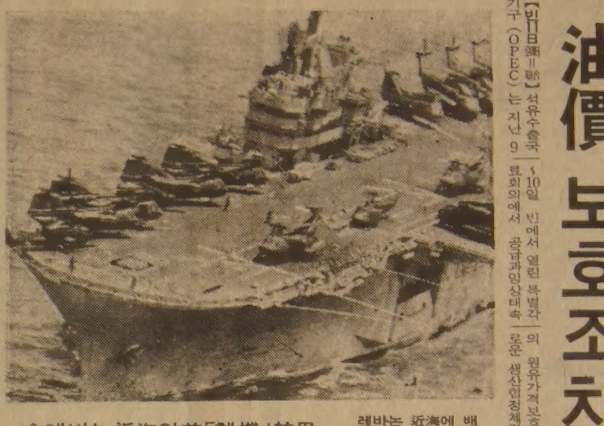
한괴한이 버킹검宮에 있는 엘리자베드 영국 여왕의 침실에 침입, 여왕과 2m사이를 두고앉아 10여분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여왕의 시종에 의해 체포됐다고 영국의 데일리·익스프레스紙가 11일 특종 보도. 사건당시 여왕의 부군인 필립公은 다른 방에 있었는데 여왕과 대화도중 괴한은『담배』를 요구하였으며 여왕은『방에는 담배가 없으니 가져오게 하겠다』고 말했다는것. 괴한을 안심시킨 여왕은 침실문을열고 복도에서 일하고있던 시종을 불러 담배를 가져오도록말했고 시종이 담배를 가져오는체 위장하여 침실로들어가괴한을붙잡았다고. 『일반인이 어떻게 여왕의 침실에까지 침입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경찰간부의 말까지 인용보도한 이신문은『여왕이침착했기때문에 괴한이 놀라지 않았으며, 만약 괴한이 놀랐더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졌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여왕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으며 사건후에 측근인사들과 이사건에 관해 농담을하는 여유를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1년새 버킹검宮에서는 침입사건이 5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번사건의 범인이 지난달 7일 宮을 침입, 포도주를 훔쳐 마시다가 체포된 미카엘·파간(30)인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AP·UPI=聯合】

鍼術로 담배끊어
★홍콩서 實施 90%成功

홍콩에서는 침술을 이용, 담배를 끊게하는 기발한방법을 실시해 90%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있다. 홍콩정부가 벌이고있는 흡연이 건강에해롭다고 경고하는운동과 관련, 최근 이침술요법을 보급하기위한 선전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홍콩침술가협회간사인 우·핑·폭박사는『이 침술요법은 흡연자로 하여금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키게하여 담배맛이 없게함으로써 담배를피울 욕망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연계획에 등록했던 50명중 45명이 담배를 끊게되었다고 주장. 【홍콩=UPI】

구독신청 배달사고 ☎ [illegible]·2801

産油量재조정 失敗 OPEC 危機


◇레바논近海의 美「헬機」航母 레바논 近海에 배치되어있는 美제6함대소속헬리콥터 항모 괌호가 여러가지 형태의 헬리콥터 들을 적재하고 11일상오 베이루트부근해역을 향진하고있다. 【레바논近海에서11日AP特約=聯合】

사우디·이란 심각한 異見
油價 보호조치도 못찾아
特別會議

【빈11日聯合】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9~10일 빈에서 열린 특별각료회의에서 공급과잉상태속의 원유가격보호를 위한 새로운 생산협정체결에 실패함에 따라 OPEC 22년사상 최대의 위기가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OPEC 13개회원국 석유상들은 10일밤 하루 1천7백50만배럴의 현 OPEC생산량상한선내에서 생산쿼터를 증량해 달라는 이란과 리비아의 요구에 대해 합의에 실패, 원유가보호를 위한 아무런 새로운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혼란속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말았다.

특별회의에 참석했던 각국대표들은 조만간 원유가격이 다소 인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OPEC회원국들의 자기보호본능을 발휘,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가을까지 자제력을 행사, 유가인하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대표들은 이번회의에서 드러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마찰을 빚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산유량쿼터재조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번회의에서 이란의 하루 산유량쿼터를 현행 1백20만배럴에서 2백50만배럴로 증가시켜주어야하며 이를위해 현재 하루 7백만배럴을 생산하고있는 사우디가 산유량을 감축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사우디는 사우디만이 혼자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軍·팔게릴라 또 치열한 砲擊戰
東베이루트도 戰禍

【베이루트11日UPI·聯合】팔레스타인 게릴라의 西베이루트 철수 협상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이스라엘軍과 팔레스타인 게릴라는 11일새벽(현지시간)을기해 또다시 치열한 포격전을 시작했으며 이스라엘軍의 레바논침공후 처음으로 팔레스타인軍이 발사한 포탄들이 東베이루트 지역에 떨어졌다.

이스라엘軍과 팔레스타인軍은 10일 베이루트국제공항 일대에서 간헐적인 포격전을 벌이다가 이날 새벽부터 야포·로키트포·박격포및 탱크를 동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이래 가장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했다.

수발의 포탄이 東베이루트의 도라지역과 베이루트유업의 연료저장소부근에 떨어졌다.

팔레스타인의 와파通信은 이스라엘軍탱크가 해안의 카자이路와 베이루트공항등 2개방향으로 진격해왔으나 팔레스타인軍은 야포, 로키트포, 바주카포및 박격포로이에 응전, 이스라엘軍을 격퇴시켰다고 보도했다.

남부 베이루트에서는 또한 55명의 레바논 어린이를 태우고 가던 버스아래에서 지뢰가 터져 어린이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했다.

이날 양군의 포격전은 하오늦게까지 계속됐으나 美國측 중재하의 휴전이 성립됨에 따라 밤에는 포성이 멎었다.

베이루트경찰은 이번 10시간에 걸친 포격전으로 최소한 민간인 52명이 사망하고 1백3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메아리
캄보디아 聯政

베트남 반대자며 캄보디아 연정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로돔·시아누크공이 11일 연립정부의 수립을 공식성명하고 정부의 명칭을「민주캄보디아연립정부」로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지도 어느덧 3년반. 그 사이 얼어붙은듯 옴쭉달싹도 하지 않은채 교착상태로 이어져온 캄보디아 문제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국면을 향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인도지나반도는 정치정세가 헝클어져서 혼돈된 양상을 면치못하는 가변성이 내연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하에서 새 연립정부가 내세운 구호는 베트남군의 전면철수와 자유선거의 실시다. 반면 베트남의 주장은 타이와 캄보디아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타이측이 3파연립정부의 무장세력을 국경지대에서 몰아내도록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유엔내의 캄보디아 대표권을 인계하게된 연립정부측과 그 대통령이 된 시아누크는 캄보디아 내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밖에서 국제간의 외교활동으로 정치적인 기반을 굳히며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는듯 하다.

다만 문제는 민주캄보디아연립정부의 세기둥이라고할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의 손·산의장과 시아누크와 폴·포트파의 키우·삼판수상간의 동상이몽이라 할수가 있다.

손·산의장은 나이들어 판단이 흐리다는 소문이고 시아누크 또한 변덕스럽고 앞뒤조리가 맞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책임질 수도없는 실언을 함부로 할뿐더러 참을성 없기로 소문이 나있다.

이들에 비기면 폴·포트파의 키우·삼판은 과묵하고 결단력과 조직력이 있으며 다부져서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연립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중지난을 일으킬 불씨를 안고 있으니 앞날이 결코 평탄치 만은 않을듯 하다.

이북 김일성의 식객 노릇도 했다가 북경에 머물기도 하면서 재기를 노려왔던 시아누크가 과연 만년에 제고장 제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될 것인지, 우리는 먼빛으로 바라볼 따름이다.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 7월31일(토) 오전 8시30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 팀당 $60(주장회의때까지 납부)
종 목 : O.B. 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 7월23일(금) 오후 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 ㅇ. 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ㅇ. O.B. 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 어쏘시에이션)률을 적용하며 상세한 것은 주장회의에서 결정함.

연락처 : 하주용 ☎ : 769-5956 박재선 ☎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 598-3732
대회장 : 박인순, 고문 : 김문량,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택, 최광준, 박재선, 조용덕
찬조금 명단 : 백이삼 $100 서춘원 $100 이회용 $100 서동현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60 조규혁 $50 윤용탁 $50
장영대 $50 이홍규 $50 박해영 $50

주최 :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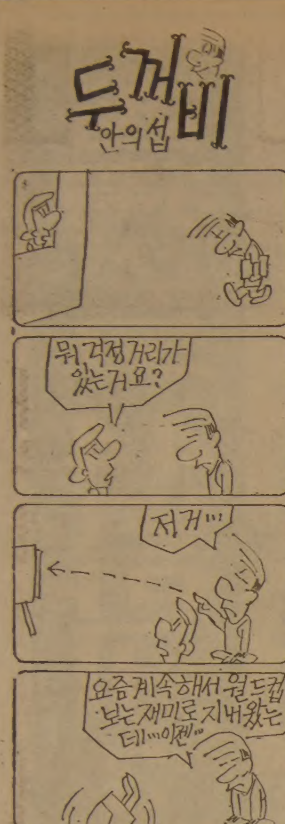
658½ BLOOR ST. W.
☎ : 537-0432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17일께 장마前線 上陸

지난週末 감질나는 비… 解渴 못미쳐

오랜가뭄끝에 10일과 11일사이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 濟州지방은 해갈이됐으나 다른지방은 일단급한목만 축였으며 전남북지방은 잇지않고도열병이 발생,농민들이 2중고를 겪고있다. 제일 비가많이온 濟州道는 평균50㎜가 내렸으나 영호남과 중부지방은 20㎜에도 못미쳐 밭작물에 도움이 됐을뿐 주말인 17~18일께 상륙할것으로 예상되는 장마전선에나 기대를 해야할 형편이다.

이번비는 西歸浦가 79.1㎜로 최고였으며 서울은 8.1·6㎜ 釜山14㎜였고 남부해안지역에 다소 많이내려 경남 南海32·4㎜ 전남光陽55·2㎜ 莞島32·4㎜등 30㎜이상이 내렸으나 전남 전북 경남북내륙지역은 20㎜ 이하로 감질만 내고말았다.

중앙기상대는이번비가中國山東지방에머물고 있던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난 때문이라고 밝히고 중국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15일께 다시 통과, 또한차례 단비를 뿌릴것이라고 예보했다.

중앙기상대는 또 일본열도 남쪽에 머물고있는 장마전선은 세력이 약해진채 정체돼 있으나 영향권에든 濟州와 남해안지방에 가끔 비가오겠고 17일께 전국적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가뭄과 함께 기온이 도열병발생에 적합, 전남북지방은 발생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7백11ha로 급증했고 전북은 9천3백여ha의 논에 발생했다.

과속버스 치여 行人2명 즉사

【東海】11일 상오 9시10분께 강원 三陟郡 近德面 上孟芳里 5반앞 국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김진덕군(12·맹방국교 5년)과 김동고씨(38·三陟邑 南陽2里)등2명이 경일여객소속 경복5아2153호 시외직행 버스(운전사 조규선·26)에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聯】

생활지도자료 發刊 文敎部

문교부는 12일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예의범절을 담은 「기본생활지도자료」를 발간, 전국 각급학교, 주요기관, 사회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문교부장학자료형식으로발간된 이책자는 가정및 사회교육용으로 개인,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생활등 5개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분야에따라 공·사생활에서 각자가 갖춰야할 예절과 행동규범이 그림과함께 자세히 담겨있다.

예를들면 「개인생활」은주로 몸가짐에 중점을두어 사람을 대할때 얼굴·눈의표정과 남의집을방문했을때의 방석에앉는법, 또는 계단을 오를때 여자보다남자가 먼저오른다는것등 예의범절이 상세히 기술돼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左傾學習은 안했다"

美文化院방화5回公判 변호인 反對審問

【釜山】부산美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金鉉奬 文富軾 崔基植신부등 관련피고인 16명(구속15·불구속1명)에 대한 제5회공판이 12일상오10시 부산지법 1호법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형사4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관련피고인 16명전원이 출정했는데 4회공판까지 마친 검찰의 직접신문에 이어 변호인단의 첫반대신문부터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식화학습부분과 부산美문화원방화사건의 방화 직접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했다.

崔基植 文吉煥 李昌馥피고인을 제외한 13피고인의 공소장에 나타난 좌경의식화학습부분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文富軾 金恩淑피고인등은 「현실인식을 위해 공부했고 사회에서 관매되는 책을 읽고 분석하며 현실을 비난했으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는 한바없으며 이러한 공부에 참여한 사람은 자발적인 것이었을뿐 누가 시켜서 전달교육을 한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文피고인은 黃仁喆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나의 부친 5형제중 아버지를 포함, 4형제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아버지는 육사8기이며 세째숙부는 6·25때 전사한 반공가족」이라며 「내가 어렸을때 아버지가 직접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무용담을 자주 들려주어 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며 부철한 반공정신을 갖고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신학대학에 입학한 동기는 각종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였다고 답했다.

이날 피고인들은「美문화원을 불태운것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불을 질러 여러사람에게 美國에 대한 한의의 뜻을 전하려 했을뿐」이라고 말하고 「현관입구 부분만 태우려 했으나 결과적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成人病 집단檢査한다

건강관리協會 산업체·학교·住居지역 대상

당뇨병·고혈압등 8개疾患 早期발견 本人에게 알려줘

6개진료권 나눠 내년부터 全國확대

고혈압과 심장질환, 당뇨, 간질환, 자궁암등 성인병을 조기발견하기위한 「집단검사제」가 실시된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徐丙卨서울의대학장)는 12일 전체 사망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병을 조기발견, 치료할수 있게하기위해 보사부의지원을 받아 기존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 전국 산업체와학교, 주거지역등을 대상으로 집단검사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이 협회는 우선 사망률이 높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자궁암 ▲당뇨병 ▲신장염 ▲간경화 ▲빈혈등 8개 질환에 대한 집단검사를 실시키로하고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책정, 검진차량과 생화학검사및 혈액검사에 필요한 자동분석기등을 마련했다.

이 협회는 일본 예방의학중앙회로부터 기증받은 심전도측정장치등을 이용,금년에는 성인병 집단검사를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며 오는8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했다.

건강관리협회는 이 검사를 위해 이미 13개시도의 지부결성을 마쳤으며 전국을 서울 부산 大邱 大田 光州 春川등 6개진료권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환자등록카드도 작성,보건정책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성인병 집단 검사사업은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의 기생충 검사사업과같은 유형으로 실시되는데 학교나 사업장단위로 검사의뢰를 받아 이상유무만을 판단,본인에게 통보,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게하는것이다.

고혈압의경우 혈압측정은 물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검사를,당뇨병의경우 당뇨추출을 위한 뇨검사와 함께 혈당검사와 포도당 부하시험까지 실시하는데 8개질환의 검사를 위해 무두 20개의방법을 이용키로 했다.

성인병검사는 임상검사와 집단검사등 2가지방법이 있는데 집단검사는 한가지기능에대해 동시에 여러사람을상대로 검사,자각증상을 느끼기전에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게하는 잇점이있으며 각종 검사비용은 의료보험숫가보다 저렴한 실비수준에서 책정될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보건의식 향상으로 전염성질환의 피해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화와 소득수준의 향상등으로 인해 성인병으로 통칭되는 암, 고혈압, 당뇨병등 비전염성 만성퇴행성질환은 크게 늘어났으며 전체 사망자의 70%이상이 성인병으로 숨지고있다.

이같은 질병은 최근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나타나 굳이 성인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성인병 집단검사는 의료사회기적인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있는데 성인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병원을 찾아 스스로건강진단을 한다는데 익숙치않아 병이 커진후에야 병원을 찾게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에 대한 집단검사제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1958년에 설립된후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기생충박멸사업이 성인병 퇴치사업으로 전환된것은 이웃 일본의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기생충예방회는 지난64년부터 성인병 조기발견을위한 예방의학 사업으로 전환했다. 【鄭崇鎬기자】

◇제철만난 해수욕장　11일 전국곳곳에 다소 비가 내렸으나 해갈하기에는 미흡。해수욕장만 제철을 만나 인파가 몰려들었다。【逸山해수욕장=聯】

邦林방적附設여중 직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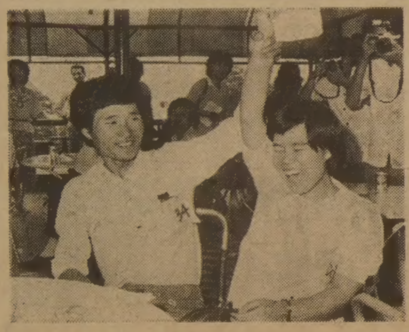
근로女中生재형저축 3천만원 본인몰래 引出

산업체부설학교중학생들이 월급에서공제 저축해온 재형저축금 3천여만원이 자신들도 모르는사이에 인출된 사실이드러나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서울永登浦區文來洞3街53 邦林방적부설 邦林여자중학교(교장朴鍾華·61) 3학년생 50여명은 12일 재형저축통장이 지난해8월부터 자신들도모르게 해약됐음을 뒤늦게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이학교 3학년 장혜연양(20)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은 1학년때부터 매월 1만원~5만원씩을 월급에서 공제, 주택은행 永登浦지점에 저축을 해왔는데 최근 일부 학생들이 중도해약을 하려고 은행에 확인해보니 3학년학생 2백19명가운데 50여명의 저축금 3천여만원이 지난해 8월부터 인출됐더라는것.

경찰은 이학교 재형저축관리책임자인 박완수교감(47)과 재형저축담당자인 서무과 여직원 徐慶淑양(24)등을 불러 조사중이다.



시골총각·都市처녀 65명 南山식물원서 合同 맞선

12일정오 서울南山공원 식물원앞 휴게실에서 시골총각 40명과 도시처녀25명이 합동맞선(사진)을 보아 이자리에서 34세의 노총각 金모씨(경북靑松郡)와 鄭모양(23)이 현장에서 백년가약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합동맞선은 시골처녀들이 농촌총각을 기피하는현상때문에 장가들지 못하는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한국가정문제연구원(원장申惠英·57)이 전국각지에서 미팅을 신청한 처녀 총각들을 한데모아 선을보게한것.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고유의 번호를가슴에달고 미리점찍어준 파트너를만나 인사를나누고레크리에이션을즐기며 조심스레 상대방을탐색했는데 金씨와 鄭양은 오는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가족과 섭외자등 1백여명이 방청했으며 공판때마다 방청해온 美대사관釜山사무소장 제임즈·B·에그너씨의 모습도 보였다.【聯】

으로 크게 번져 사람까지 죽게한데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술먹고 떨어뜨린돈 지배인이 가로채

【釜山】부산진경찰서는12일 술집종업원 차재관씨(21·부산西區槐亭洞1011)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전과1범인 차씨는 부산西區槐亭洞소재 주점'광화'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지난11일밤9시께 손님 김재용씨(50·부산東區凡一4洞1459)가일행2명과함께 술을먹다 화장실에 떨어뜨린지갑을주워 지갑속에있던 현금 1백25만원과 자기앞수표 10만원짜리21매등 3백35만원을 돌려주지않고 챙겼다는것.【聯】

過速 시내버스굴러 승객40여명 중경상

12일하오4시30분께 서울西大門區延禧2洞181의9 동익아파트앞 홍제천 둑길에서 홍은네거리쪽으로 달리던 신진교통소속 서울5사5179호 74번시내버스(운전사 姜炳昌·34)가길옆 4m아래 둑밑으로 떨어져 明知여중2년 金봉희양(14)등 승객4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폭6m의 둑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길옆에서 갑자기뛰어나온 어린이를 피하기위해 핸들을 반대편으로꺾는순간 전화공사로 파헤쳐져 고르지못한 노면이 10cm가량 내려앉으면서 생긴턱에 바퀴가걸리면서 방향이뒤틀려 굴러떨어진것.

斃死한 쇠고기먹고 住民13명 食中毒

【釜山】한마을주민 13명이 병들어죽은 쇠고기를먹고 집단식중독을 일으켜 1명이중태에 빠졌다.

지난10일상오9시께 경남梁山郡日光面龍川里대리부락 송종학씨(42)등 한마을주민13명이 같은마을에사는 정철모씨(27)의 생후 1개월된 송아지를사서 나눠먹은뒤 13명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켜 이중 송씨는 부산메리놀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중태다.

정씨는 자기집 송아지가 지난8일 병들어죽자 다음날 송씨등에게 2만원을받고 팔았다는것인데 경찰은 병들어죽은 송아지를 판 정씨를 과실치상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聯】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용돈 안준다고 누나·조카 刺殺

20代청년 구속

【釜山】부산東部경찰서는10일 조유상씨(27·주거부정)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10일밤 9시30분께 부산東區佐川3洞79에 있는 의붓누나 권영남씨(44) 집으로 찾아가 용돈을 요구,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방에있던 조카 김성희군(14·동아중3년)과 성룡군(11·성남국교 6년)을 찔러 숨지게한후 이웃집으로 피신중이던 누나마저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는것.

조씨는 21세때 어머니를 여읜후 큰 누나인 권씨와 작은누나인 조모씨(36)집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는데 2개월전에도 일수놀이를 하는 권씨집을 찾아가 용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한후 이날 다시찾아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聯】

축구시합하던 10代 가슴에공맞고 死亡

【論山】11일 낮12시40분께 충남論山郡陽村面仁川里등선국민학교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하던 이마을金容吉군(18)이 가슴에 공을 맞아 쓰러진것을 인근 병원으로옮겼으나 숨졌다.【聯】

9대國會議員 吳定根씨

국세청장과 제9대국회의원을지낸 吳定根씨(사진)가 11일하오7시20분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54세. 영결식은 13일 하오2시, 장지는 국립묘지. 유족으로는 미망인 鄭愛羅여사와 3남1녀. 연락처 ㉘7302~3.

「神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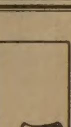
물줄기 찾아주는 尹英均신부

버드나무가지로 百發百中 짚어

충남扶餘郡扶餘邑東南里720扶餘천주교회 尹英均주임신부(46)는 극심한 가뭄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물줄기를 찾아주는일로 눈코뜰사이없이 바쁘다.

관정을 뚫으려해도 막대한비용을 들여 헛구멍을 뚫는예가 많은 농민들이 尹신부를 찾아가면 尹신부는 대개 어려움을 해결해주곤 한다.

尹신부가 Y자형 버드나무 한가지를 받쳐들고 갈라진 논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뚝서면 그지점이 물줄기가 있는 지점이고 정해주는 깊이로 파이프를 박으면 물이 콸콸 솟는다.



尹신부가 지난 78년 현지에 부임한이래 물이나는곳을 알려주어 성공한 관정수는 어림잡아 3~4백개소.

尹신부는 지난달 27일에는 金云永씨(40·扶餘邑 雙北里235)의 요청으로 金씨의 논에나가 지정한 곳을 뚫자 일량 50톤이상의 지하수를 계속뽑아 올릴수가 있었다.

신비롭게 보이는 지하수 찾는 방법에 대해 尹신부는『내가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다니며 지하수의 맥을 찾는 일은 신통한 일이 아니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이치를 이용하는것뿐으로 프랑스등지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의 연습과 경험을 통해 지하수의 깊이와 물량및 지하수의 폭을 정확하게 파악할수있게 됩니다』고 설명한다.

Y자형 산나무가지의 양끝을 수평으로 받쳐 잡고 땅위를 천천히걸으면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는 나뭇가지가 아래로 휘고 지하수가 없는곳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이 尹신부가 이용하는 지하수맥을찾는 방법이라는것.

인체의 주성분도 물이며 산나무가지도 물이 함유된 물체이고 지하수도 물이므로 이러한물과 물이 인력작용을 일으키기때문에 수맥을찾기쉽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하수의 인력은 비행기를타고 공중에서도 감지되며 강위에서도 강바닥밑을 지나가는 지하수를 찾아낼수있다.

尹신부의 지하수찾기 방법은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집터나 축사·묘지 선정등에 이용될 상식으로도 가치가있어 부여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있다.

올해도 한해극복에 공이 많았던 尹신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며 분명 백제의 옛도읍지 부여에 한발은 심해도 한해는없어 풍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扶餘=聯】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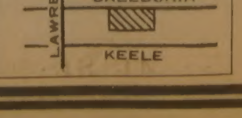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에 한함
July 19 - July 31/'82

Lola 250ml. 24 x 33c	4.45
Life Saver Lollipops 120 x 10c	7.75
Hershey Reg. Chocolate Bar 36 x 40c (Reeses pieces, penuts better cup. Crunch Penut butter cup, Hershey milk, Hershey almond, Hershey special crisp) Kisko kids	7.99
Kisko Kids 100 x 5c	3.05
Sun pac Juice (Fruit Punch, Orange, Grape Pinapple, Tomato plus)	7.99
Sun pac Nectar (Rich pear, apricot)	8.35
Sun Pac Grapefruit	8.25
Pocket Kleenex 12 x 12's	16.89
Tiffany peg top candy 12 x 1.29	9.29

약간명의 세일즈 맨을 모집합니다.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DUFFERIN
CALEDONIA
KEELE
LAWRENCE

榮譽의 월드컵 이탈리아 품에…

西獨꺾고 44년만에 3번째 頂上에

로시砲門…후반서 연속3골

3-1

◇伊두번째 골…決勝點

이탈리아—西獨결승전。이탈리아의 타르델리⑭가 후반24분 두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다. 【마드리드AP電送=聯合】

【마드리드11日=聯合】 이탈리아가 영예의 월드컵을 품에 안았다.

이탈리아는 12일 새벽3시(한국시간) 이곳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서 킥오프된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결승전서 라이벌 西獨과 강렬한 태클을 주고받는 격전끝에 후반 로시(12분) 타르델리(24분) 알토벨리(36분)의 연속득점으로 3-1로 승리, 지난 34·38년대회 우승에 이어서 44년만에 월드컵을 세번째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월드컵서 3회 우승을 차지한 것은 70년 브라질에 이어 이탈리아가 두번째이다.

로열박스에서 카를로스 페인왕, 슈미트 西獨 수상등과 함께 관전한 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파안대소하며 『이탈리아 축구에 빛나는 르네상스가 전개되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선수들의 뺨에는 땀과 함께 눈물이 얼룩졌으며 스탠드 곳곳에 삼색깃발을 흔들며 응원에 열을 올린 4만여 이탈리아 팬들은 『로시, 로시』를 외쳤다.

2게임서 5골을 넣어 『새로운 축구황제』 『이탈리아의 돌풍』 『황금의 사나이』 등의 별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파울로·로시(26)는 이날도 선제골을 기록, 이탈리아 우승에 견인차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이번대회를 통틀어 총 6득점으로 최다득점 선수가 되었다.

마드리드서 제2의 축구인생을 화려하게 열어놓은 로시는 스포츠기자들의 투표에 의해 최우수선수로 선정, 골든 트로피를 받았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예상밖으로 격렬한 태클을 교환,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선수가 속출했으며 이탈리아의 그라지아니가 어깨를 다쳐 전반7분에 퇴장했다. 이날 코엘호 주심(브라질)은 콘티, 오리알리(이상伊) 드렘러, 슈틸리케(이상西獨)등 4명에게 경고카드를 내밀었다.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이탈리아는 빗장수비로 철통같은 방어망을 편후 기습공격을 펼치는 작전을 벌였다.

이탈리아는 전반25분 귀중한 페널티킥을 얻어 1점을 리드할수있는 찬스를 잡았으나 카브리니가 실축, 결실을 맺지못했다. 페널티에리어 안에서 한스-피터 브리겔이 콘티를 쓰러뜨리자 주심은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한것.

이탈리아는 후반12분 로시의 수훈골로 리드를 잡았다.

루메니게의 파울로 얻은 프리킥을 젠틸레가 잡아 오른쪽을 돌파, 크로스패스하자 로시가 과감히 대시하며 다이빙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어 24분에는 타르델리가 총알과 같은 왼발 강슛으로 2번째 골을 넣어 승리를 사실상 결정짓고 36분에는 전반교체 FW 알토벨리가 콘티의 도움으로 세번째 골을 터뜨렸다. 서독은 39분 브라이트너의 득점으로 영패를 면했다.

서독의 골게터인 루메니게는 후반25분 그라운드서 물러났다.

◇전적

▲결승전

이탈리아 3 (0-0, 3-1) 1 서독

▲3, 4위전 (11일)

폴란드 3 (2-1, 1-1) 2 프랑스

◇이탈리아 우승발자취

1차리그	이탈리아	0—0	폴란드
		1—1	페루
		1—1	카메룬
2차리그	이탈리아	2—1	아르헨티나
		3—2	브라질
준결승전	이탈리아	2—0	폴란드
결승전	이탈리아	3—1	서독

◇헹가래받는伊감독 엔조·베아르조트가 이탈리아 선수및 임원들과함께 우승의 감격을 나누고 있다. 【마드리드 11일UPI=聯合】

◇스페인 월드컵 각종기록

▲52게임에 146골, 게임당 2.8골 (최저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2.6골, 최고54년 스위스 월드컵 5·3골)

▲득점왕: 파울로·로시(이탈리아) 6골

▲1게임 최다득점: 로시(이탈리아) 루메니게(서독) 키스(헝가리) 이상 3골

▲1게임 최다득점차: 헝가리(對 엘살바도르 10-1)

▲한게임 최다 골: 11골 (헝가리 10-1 엘살바도르)

▲최장 무실점GK: 피터·실턴(잉글랜드) 3백66분(체코-프랑스전 5게임)

▲최단시간 득점: 브라이언·롭슨(잉글랜드) 對프랑스전 경기시작 27초

첫번째 줄·리메컵은 브라질이 永久소유
…번째 FIFA컵은 모조품으로 수여
월드컵

이탈리아가 차지한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은 18캐럿트의 황금과 공작석으로 만들어진 무게5kg, 높이36cm의 정교한 조각품.

1930년에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월드컵은 프랑스의 줄·리메씨가 기증한것으로 승리의여신이 조각되었고 일명 줄·리메컵이라고도 했다. 이컵은 70년 브라질이 사상 처음 3차례 우승을차지, 브라질이영구 소유하게되었다. FIFA는 이에따라 트로피를 새로제작, 「FIFA 월드컵」이라고 명명했으며 53종의응모작중이탈리아의조각가 실비오·가차니가의 작품이 채택되어 2만달러를 들여 제작했다.

FIFA 월드컵은 3회우승을해도 영구소유를 인정치 않으며 실물과같은 크기의모조트로피를 만들어수여한다.

전세계 10億팬 熱狂시킨「로마軍團」

◇로 시

이탈리아가 스페인 월드컵에 도전했을때 2년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온 로시가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때처럼 그 價値를 찾을수있을까하는 것이 의문이었다.

또한 스트라이커인 로베르토·베테가가 없는 이탈리아가 수비위주의 전략만으로 견뎌낼수 있을까.

그러나 이모든의문은 기우였다. 서독은 빗장수비로 이름난 이탈리아의 전통적맨투맨디펜스를 제치지못했고 로시는 파시스트 시대의 축구명성을 조국에 되찾아 주었다.

미드필드를휘젓는 시레아, 젠틸레의 공격력과 적의 문전을 파고드는 콘티。이탈리아축구가 이제는 수비의존축구가 아님을 실증했다.

이탈리아우승의 功은 베아르조트감독에 돌려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빗장守備」이어 강력한 得點力 개발
로시 2년만에 復歸…傳說의 스타로

베아르조트감독은 78년 월드컵에서 공격적축구의 위력을 자신했다.

베아르조트는 명문 유벤투스팀선수 7명을 주축으로 진용을 짰다.

노장 수문장 조프외에 젠틸레, 카브리니, 시레아, 타르델리, 로시등 모두가 수비와 강력한 득점력을 겸비한 선수.

수비만 잘했서도 이기지못한다는 베아르조트감독의 신념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게르만重戰車들을 깨뜨린 로마軍團의 빛나는 용사들을 살펴보면—.

▲로시=이번대회서 축구황제의 자리를 굳혔다. 뛰어난 순발력과 강인한 체력에 강한 슈팅이 일품. 특히 좁은공간을 파고드는 드리블은 면도날처럼 예리하다. 80년초 승부조작 스캔들로 2년간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9주전에복귀, 이제 불명예를 말끔히 씻고 아르헨티나의수퍼스타 마라도나를 상회하는 1천만달러짜리 선수로 등장했다. 에우제비오, 뮐러, 켐페스, 펠레등 전설적 스타들과 자리를함께 하게됐다. 26세, 1m78, 76kg.

▲조프=주장.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끈 승리의 주역. 40세의 노장GK로 『파파·디노』라는 애칭을 갖고있다. 4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조프는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세계의 1級 GK임을 한번 과시했다. 1m82, 78kg.

▲젠틸레=가장 끈질긴 선수로 적절한 태클을 구사하는선수. 마라도나와 지코의 발을 묶어 이탈리아의 2차리그진출에 기여했으나 경고를받아 준결승전 출전이 좌절됐다. 28세, 1m78, 71kg.

▲카브리니=젠틸레와함께 유벤투스의 FB로 활약. 공격에 가담하기를 즐긴다. 2차리그 對아르헨티나전서 멋진플레이와 함께 득점을 올려 빛을 보았다. 24세, 1m78, 72kg.

▲콜로바티=1백50만달러에 인터나치오날팀으로 이적한 세계적 스위퍼. 특히 공중볼에 강한 철통의 수비로 알려져있다. 24세, 1m81, 75kg.

▲시레아=매우 실리적인 수비를 펼친다. 때로 게임의 흐름을 벗어나 뛰어다니는듯 하다가도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인다. 득점력도 뛰어나다. 28세, 1m78, 75kg.

▲타르델리=집요한 미드필더. 강한 승부욕때문에 베아르조트감독의 호감을 사고 있다. 결승전서 두번째 골을 올렸다. 27세.

▲안토니오니=지난시즌 이탈리아리그서 머리를 다쳤으나 회복, 능숙하고 창조적인 미드필더라는 평판. 28세.

▲콘티=대회전에 입은 무릎부상으로 고전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견실한 플레이를 보였다. 이탈리아가 득점부족으로 고전한 1차리그의 2골중 1골을 따냈다. 펠레는 그를 이탈리아 최우수선수로 꼽고 있다. 25세.

▲그라지아니=로베르토·베테가가 부상으로 결장하자 로시와 대신 콤비를 이뤄 강력한힘을 이뤘다. 결승전서 전반초부상으로퇴장. 29세.

▲알토벨리=그라지아니의 부상으로 2차리그까지 벤치에앉아있었으나 결승서 교체 FW로나와 3번째골을기록. 서독의 반격에 쐐기를박았다.

▲베르고미=18세로 이번 대회 최연소선수. 폴란드와의 준결승전서 젠틸레대신출전, 훌륭한 몫을해냈다.

▲오리알리=개성적인 플레이어로 공수 연결에 눈부신 공헌을했다. 학교시절부터 각급 대표선수로 활약. 29세.

팀웍이 우승原動力

【兪奭根기자】

▲엔조·베아르조트이탈리아감독=전반전에서 카브리니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으나 나는 우리가 이길수있을것으로 확신했다.

카브리니가 페널티킥을 실패했을때 동료들이 감싸주는 등 일사불란한 팀웍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이탈리아는 2차리그 아르헨티나와의 승리를 계기로 자신감을 갖게 됐다.

對佛戰서 너무지쳐

▲유프·데어발西獨감독=西獨은 준결승인 프랑스와의 경기서 악전고투, 너무 피로했다.

우리는 승리에 필요한 전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수비진이 이탈리아공격수들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세계챔피언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로시의 첫골이 이날 승부의 고비였다. 이탈리아의 수비와 기습반격은 훌륭했다.

한국、뉴질랜드 격파
국제농구決選 大學선발은 말聯에 역전패

한국대표농구팀은 11일 잠실체육관에서 속행된 82서울국제초청남자농구대회 4일째 결승리그 첫날경기서 朴仁圭, 朴宇敎, 李忠熙 트리오의 활약으로 뉴질랜드에 85-70으로 이겨 1승을 올렸다。

한국은 朴仁圭가 李忠熙대신 교체멤버로 들어오면서 활기를 띠기시작、뉴질랜드와 호각세를 보였다。후반 한국은 申東佑의 [illegible]、朴宇敎의 과감한 드라이브·인으로 51-44로 리드를잡은다음、李忠熙이 슛과 인터셉트로 분전、낙승했다。美國은 덩크슛을 쏘며 오스트리아를 118-69로 대파했고 中華民國은 타이 14번、23번의 이전을 거듭하며 스웨덴과 연장전끝에 90-89로 역전승했다。

한편 12일 열린 하위리그서 한국대학선발팀은 말레이지아에 97-96으로 역전패했다。

◇결승리그 제1일

대한국 85 (46-30, 39-40) 70 뉴질랜드

미국 118 (65-42, 53-27) 69 오스트리아

자유중국 90 (13-12, 42-40, 35-37) 89 스웨덴 (연장)

▲하위리그

말레이지아 97 (47-43, 50-53) 96 대학선발

◇제2일 전적

中大、작년覇者 第一銀격파
白虎旗야구개막、11회연장전 끝에 5-4

제32회백호기쟁탈전국야구대회가 12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첫날 지난해우승팀인 第一銀行이 대학중위권팀인 中央大와 연장 격전끝에 대패、1회전서 탈락하는 비운을 당했다。

中央大는 金龍洙、朴健의 계투로 第一銀行의 타선을 압도하면서도 잇단 실책으로 4-4의동점을 허용했으나 연장11회초 桂東植의 좌월2루타를 발판으로 결승점을 획득, 5-4로 승리했다。

실업하계리그 최하위팀 韓一銀行은 2번 裵泰旭의 선제 솔로 호머를 포함한 3타수3안타3득점1타점의 수훈으로 嶺南大에 5-4로 신승했다。

◇첫날1회전

한일은행 202 000 100—5

영남대학 002 200 000—4

▲홈런=裵泰旭(1회·한일)

중앙대 010 000 021 01—5

제일은행 000 000 400 00—4

(연장11회)

▲홈런=金亨錫(6회·중앙)

남자배구、美에 完敗
守備난조와 신장劣勢 만회못해

한국 남자배구대표팀은 12일 문화체육관에서 속행된 국제친선남자배구 대회서 장신의 美國에 3-0으로 패했다。

한국은 이날 수비난조에다 콤비네이션마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신장에서 4、5cm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중남미선수권대회서 쿠바에 3-2로 패배했던 美國은 한국에게 가장 대결하기 힘든 팀·컬러를 보였다。지난해 월드컵 2위 쿠바、3위 브라질보다 한수 아래인 美國이지만 좌우오픈 공격、중앙속공등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1m98의 리치·두엘·리우스의 오른쪽 백·어택공격이 위협적이었다。

◇제2차전

미국 3 (18-16, 16-14, 15-4) 0 한국

白仁天 10號홈런
MBC、해태完破

프로야구 홈런경쟁에 불이 붙었다。MBC·青龍의 감독겸 지명타자 4번 白仁天은 11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해태·타이거스와의 후기리그 2차전서 6회말 역투하던 해태선발 金竣男의 초구를 강타、좌월 3점 홈런을 날려 통산10호 홈런을 기록했다。MBC는 이 홈런에 힘입어 4-0으로 완승했다。

◇11일 전적

◆서울

해태 000 000 000—0

MBC 000 004 00×—4

▲홈런=白仁天(6회3점·MBC)

◆부산

OB 000 001 101—3

롯데 101 000 000—2

▲홈런=具千書(6회·OB)

◆대구

三美 000 000 000—0

三星 001 301 00×—5

▲홈런=李萬洙(4회·삼성)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㊵

일환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 문기둥에 달린 작은 창살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니 큰 문 옆에 달린 작은 쪽문이 저절로 열렸다.

뒤돌아보고 잠깐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문안으로 들어간 일환이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함부로 여기저기 흩어진 짐사이를 오락가락, 일환이가 다시 돌아나오길 기다리는 오목이는 고독했다.

고독한 처지라는 것하고 고독하다는것 하곤 달랐다. 그녀처럼 고독한 처지도 드물겠지만 그때처럼 고독한적은 생전 처음이었다. 온세상의 집의 문이란 문은 모두 굳게 닫혀서 암호를 아는 사람외엔 절대로 문을 안열어줄 것같아 굳게 믿었던 일환이조차 그 암호를 혼자만 알고 혼자만 써먹고 집안으로 들어가버렸으니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사람 사는 동네에 너무 인적이 드문것도 그녀 혼자만 집밖에 내 팽개쳐졌단 망상을 더욱 실감나게 했다.

그녀는 일환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철대문을 고개가 빠지게 쳐다보느라 축대에 붙은 셔터가 녹슨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뭘 하고 있어? 후딱후딱 짐 끌어들이지 않고』

셔터가 다 올라가고 동굴의 입구처럼 어둡게 뚫린 네모난 구멍을 큰대(大)자로 막아서서 이렇게 고함을 치는 일환이를 오목이는 생전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끼면서도 하란는대로 짐을 날랐다. 낑낑대며 그녀혼자 짐을 다 끌어들일 동안 일환이는 삐딱하게서서 구경만 했다. 심술이 잔뜩 나있는것도 같았고 그녀가 여지껏 모르고있던 고약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것도 같았다.

차고속은 차가 없어서 그런지 꽤 넓었다. 일환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오목이가 짐작한대로 방은 낮에도 불을 켜야할만큼 어두웠다. 그러나 뒤란으로 도는 사잇길쪽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긴 있었다. 한번도 사람이 산 적이 없는듯 장판은 먼지가 쌓인채 군데군데 지도모양으로 썩어가고 있었고, 벽지도 곰팡이를 피어올리며 눅눅하게 처져 있었다.

연탄이 잔뜩 쌓인 방과는 반대쪽구석의 계단으로화려한 홈웨어자락이 나풀나풀 내려왔다. 차고로보다는 연탄광으로 유용하게 쓰는데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시커먼분위기에 향기롭고 빛깔고운옷자락과 희고 매끄러운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선녀의 하강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곧 올라가 뵐참이었는데요.』

일환이가 주인여자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젊은 사람들 사정이하도 딱하다길래 방을 내주긴 내줬지만 살만할까 몰라』

『웬 별 말씀을요. 과분한 방인데쇼』

『손이 좀 가야할거요. 신접살림이라며? 이것 저것 부족한게 많을텐데 내가 뭐 도와줄게 없을까? 스스럼워하지말고말해봐요』

『예서 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희가 필요한건 대충 다 장만해가지고 왔으니까 염려마세요.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만…』

타고난 재주처럼 능숙하게 비굴하게 구는 일환이를 뭔가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바라만 보고있던 오목이가 안되겠다싶어 앞으로 나섰다.

『저어, 걸레할만한 걸 좀 주시지않겠어요?』

구독신청 배달사고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 각종 유화·서양화
•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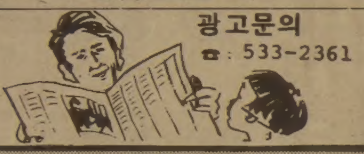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1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12-1205(B)(R)743-4842 Mr. 이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대신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우 진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난초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1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신기, 개스히팅, 위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신용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부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소만및 이사짐, 피아노, 콜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 율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
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
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
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병수 회계사무소
481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영업시간: 월~토 : 오전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조 지섭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가게를 맡아 운영해주실분 찾음.
보증금 요(스탁).주매상: $8,000 이상
연락처: 491-9701, (오후 6시이후 292-8838 Mr. 신)

Becker Store Manager 구함.
당분간 맡아서 보아주실분(경험자 우대)
전화 : 924-7696 (Mr. Lee)

Part Time 남자헬퍼 구함.
(Richmondhill 지역) 전화: 884-5433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Donut Shop Manager구함.
직접 내방 바람.
1485 Gerrald St. E(& Coxwell)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여자분)
좋은가격과 일하시기 좋은장소 보장함.
전화 : 466-1461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하숙원함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Grocery Store — Private Franchise
Stock downpayment. S.W. of Toronto.
Best Offer. Phone: 259-2123 (이자예브)

78년도 CHEV. PICK-UP 트럭 급매
가격 : $3,800
전화 : 665-8233 (아침 10시~저녁 6시)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Ice Cream Store (Hotdog·Donut·Sandwich) 토요일 : Half Day. 일요일 : Close
1184 Weston Rd.(Eglinton & Weston)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Variety Store for Sale(Georgetown, Ont)
주매상 : $6,500. Open한지 3개월 되었음.
경쟁없는 가게. 넓이 : 2,000s.f. 렌트 : $1,300(M.)
185 Mountainview Rd. 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1-873-1377

1. Coffee & Snack Shop
주 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내.
주매상: $5,000 Rent: $830 리스: 1990년
2. Albion Rd. & Hwy 27 공장지대
한국요리를 겸할수 있는 Chinese Restaurant
주류일절 판매. Rent: $1,000 리스: 1986년 + 5년 option
3. 시간짧은 Drive in Hambu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년 + 5년 option

A. E. LePage Real Estate
Mrs. Woo 전화 : 741-9170

(1)New Franchise Ice Cream & Sandwich Bar.
도미니언과 씸슨 사이에 있는 커다란 Mall안에 있음.
Lease : 10년. Mortgage : $75,000. 12%. 5years.
(2)New Franchise, Hamburger(Yonge & Dundas)
주매상 : $9,000. Lease : 20년. 다운페이: $100,000

Patrick Ho. R.E.
Call Goe Sham
전화 : 593-8967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Baskin & Robbins -Ice Cream Store 매매
Franchise임. 리스 : 10년
전화 : 241-9593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급매.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3,300~$3,500. 리스 : 9년. 렌트 : $350.
이층 살림집 렌트 가능. 전화 : 757-64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1)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 $500/M.
리스: 5+5. 아스킹 : $38,000+스탁.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Hamburger Shop
30여대 자동차 파킹 가능한 건물임. 건물은 McDonald 이나 Harvey와 같이 단독 건물임.
Asking : $150,000(건물포함)

(2)Variety Store in Mall
주매상 : $5,500+Lotterio+Post Office.
Lease : 5년+5년 Option. Rent : $1,800(관리비. Tax포함)
영업시간 : 월~토(9:00 a.m~9:00 p.m) 일요일은 쉼.
Asking : $100,000+스탁

(3)Variety Store with Gas Bar & Post Office
건물 2층에 2Bed Rm. 3Bed Rm Apt가 있으며, 단독주택도 있음. 그곳에서 월세가 $760 수입됨. 현재 여자노인 혼자 경영 하루매상 $300이나 전에는 주매상 $5,500넘던 가게였음. 작은돈을 투자하시고 살수 있으며, Rent에서 나오는 돈으로 Mortgage 지불하고 남음.
Asking : $13,500. Mortgage : 1st. 11½% $72,000
2nd Mortgage도 가능함.
연락처 : Mr. 박(오샤와) 1-623-7000

가게렌트

Gift Store for Rent
렌트 : $800/M. 넓이 : 800 s.f
663 Bloor St. W. 전화 : 531-1563(그레이스)

여권

여권번호 : 426871
분실장소 : Hamiton Downtown지역
연락처: 526-0014 (방용학)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아파트렌트

3 Bed Room. (M/$470).
7월말경 입주 가능 (Lawrence×Caledornia)
전화 : 651-4431

집렌트

2층 전체를 세놓고자 함(565 Pape Ave.)
2 Bed Rm. with 부엌 & 목욕탕.(노인부부환영)
월세: $350(M.) 전화 : 591-6863, 438-4519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더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운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O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홍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이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 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1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

보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비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